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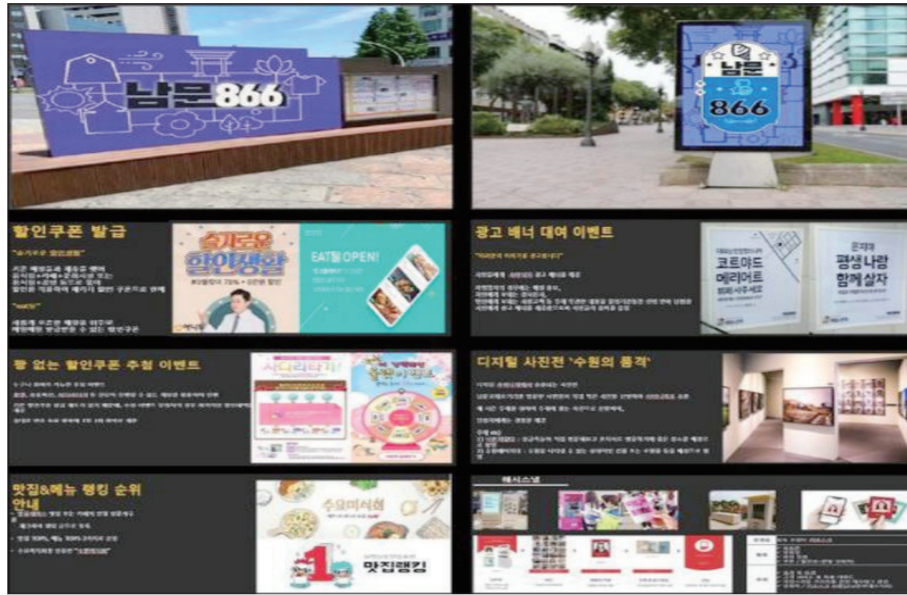
‘점음의거리’였던 수원 남문로데오거리, 부활을 꿈꾼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으로 활성화 모색

수원 ‘남문로데오거리’는 1980~90년대 수원시 상권의 중심지이자 최대 번화가였다. 이른바 ‘점음의 거리’로 불리며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수원역, 인계동, 영통, 광고 등 새로운 상권이 속속 성장하면서 남문로데오거리의 부활을 위해 남문로데오시장 상인회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수원시도 남문로데오거리 일원에 청년혁신점포를 지정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청년바람지대’를 개소하는 등 거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017년 1월에는 ‘남문로데오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올해는 남문로데오거리 일원에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겟 마케팅’ 광고를 표출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구도심 활성화에 나선다. 디지털 옥외광고물은 행정광장에서 남문로데오거리, 수원항교로 이어지는 2km 구간에 들어선다. 행정광장 공방거리 입구에 1개, 남문로데오거리에 3개소, 인근 버스정류장 1개소 등 총 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1월 중 사

업을 발주해 수행사를 선정하고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치 후 1년간 시범 운영을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상용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옥외광고물은 일반적인 광고 메시지를 표출하지 않는다. 지역 상권의 업종·시간대·연령·성별 유동 인구·이동 경로 상권, 신용카드 사용, 방문객 유형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타겟 마케팅 광고를 내보낸다. 남문로데오거리의 매력을 알리고 상가를 안내하는 광고와 수원시 관광 전자지도, 주변 교통·주차 정보, 날씨·환경, 행사·축제 일정 등 공공 정보도 제공한다.

또 쿠팡 코드를 활용해 내려받을 수 있는 이벤트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디지털옥외광고물에 표출할 예정이다. 인터랙티브 디지털콘텐츠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된다. 수원시는 2019년 12월, ‘Digital Intelligence로 완성 행정과 남문로데오 거리’를 휘영청 잇다’라는 사업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등 10억원이다. 디지털광고물도 어두운 원



도심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침체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수원시의 의지를 사업명에 담았다.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주민·상인설명회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지를 분석해 디지털옥외광고물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또 남문로데오거리 브랜드 네이밍·콘텐츠 개발 용역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2월 중 남문로데오거리 지역주민, 상인회와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남문로데오거리 민·관 거버넌스 상생협약’을 체결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이번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GIS, IoT 등 4차 혁명기술을 활용한 ‘수원형 디지털옥외광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남문로데오거리 상권이 활성화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남문로데오거리, 수원화성을 잇는 거리를 되살려 수원화성 방문객의 발길을 남문로데오거리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칼럼] 신축년 새해 흑한의 신고식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려면 소정의 신고식이라는 절차가 있었다. 조폭 세계에서나 있음직한 신고식은 군대나 교도소는 물론 문화예술 스포츠 단체와 기업이나 대학교 동아리 모임까지 일종의 새로운 신입 멤버의 합류를 앞두고 벌이는 일종의 환영식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폭력과 음주가 난무한 분위기에서 건전한 대화와 식사자리로 달라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신고식은 새롭게 맞이해야 할 환경에 대한 이벤트임은 확실하다. 소파의 해 신축년이 시작되는 2021년 24절기의 첫 출발인 소한이 출발부터 이름값을 하기 시작했다. 6일부터 서서히 시작된 한파는 5일째 영하 15도 이하를 기록하며 올해 신고식을 다부지게 치르게 한다. 안 그래도 코로나19여파로 인해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같은 때라도 아플 때 맞으면 더 아픈 법이다. 집합금지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항되면서 어렵사리 배달이라고 매출을 올리려했던 자영업자들은 눈길에 배달이 중단되자 속수무책 쌓이는 눈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불과 1년 전과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다. 형편없이 줄어든 적자에 배달중단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식자재 납품처부터 일하던 종사자들, 오토바이 배달원이 육지의 모습이라면 바다조차 얼어붙어 조업이 불가능해졌다. 얼어붙은 바다는 출항을 준비하던 어부들의 발목을 잡았고 일제소 추수를 하려던 농민의 일손을 쉬게 했다. 농사를 짓던 비닐하우스는 급격히 떨어지는 수온에 얼어붙어 얼어붙었고 웬만하면 버티던 공동주택이나 변두리 지역의 수도관은 그대로 냉동파이프가 됐다. 이미 민생고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번 한파는 육체적 체감온도보다 정신적 체감온도를 더 낮게 만들었다. 어제가 소방당국 집계를 보면 구조인원 37, 수도계량기 4947건, 수도관 253건 등 모두 5200건을 넘어섰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복구가 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전선사태는 요즘처럼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는 시대에 참혹한 형벌이었다. 남부지방에서도 채소류 농산물 피해가 속출했지만 가족이나 물고기를 또한 별반 대안이 없었다. 사람이야 어찌하든 아프면 아프다 말이라도 하겠지만 짹소리도 못하고 한파에 휩쓸려가는 피해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역으로 볼 때 해충들이 박멸하는 효과도 기대되지 않을까. 한해의 시작이 꽤나 이듬값을 하면서 출발했다. 긍정의 힘은 그 효과가 무한대다. 번개만큼 강력한 지구정결제가 없고 태풍만큼 확실한 먼지털이가 없다. 언젠가 중국의 마오쩌둥이 참새가 벼의 알곡을 먹는다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참새 소탕령을 내렸다가 20억마리를 잡은 후 전적이 없어진 해충의 극성으로 농사를 망쳐 2천 만명이 아사한 사건이 있었다. 하나를 잃으면 둘

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긍정적 견해, 눈을 잃으니 귀가 밝아지고 전정이 끝나면 재건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과 같다. 신축년은 이제 시작이다. 한해 운명은 다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얼마든지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 올해 가을은 어느 해 보다 풍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잘 되게 하려고 흑한의 신고식을 준비했을까. 두려워 벌벌 떠다고 달라질게 없으며 어차피 피하지 못할 일은 즐기는 게 맞다. 코로나19, 백해무익한 질병이었을까. 불필요한 모인절제와 독자적인 공간에서 평소 못했던 취미와 특기를 찾아보는 기회는 되지 않았을까. 앉아 있을 때는 모르는 한숨을 서보면 알 수 있듯이 먹고 살기 2020년 이전에는 관망했던 시절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때도 그 이전에도 힘들던 아우성은 늘 쳐왔지만 돌아보니 엄살이 아니었던가. 죽기 살기로 애쓰지 않았음을 일깨워준 한해였다. 무릇 인간의 삶이란 환경에 끌려갈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리드하는 존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이다. 자만하자는 게 아니라 잘 이겨 낼 수 있다는 뜻이며 작정하고 텨비는 자가 제일 무섭다 했다. 작정이라는 것 또한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 마음먹기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삶의 비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노래방을 비롯한 헬스클럽 등 종북별 휴업거부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취지인데 한군데 허기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통제 불능사태로 이어지면 지금 같은 행정시스템에서 막 파파로 나가는 업주들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이며 우려대로 감염이 일파만과 확산된다면 그때 어쩔 것인가. 지금까지는 정부의 방역 매뉴얼을 신뢰해서 준수했을까. 아니다 국민건강이 위협받기 때문에 지침의 효과보다는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감이 바로 서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흑어 너도나도 영업을 재개 했다가 벌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확진 자가 무더기로 증가하면 그때 어쩔 것인가. 지금까지는 재난 수준이었지만 자칫 제왕수준으로 간다면 과테레나 휴, 폐업이 문제가 아니다. 유럽의 상황을 눈으로 보고서도 설마 하는 것이라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된다. 막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돌입하면 방역당국도 의료진도 그 누구도 해결할 주체가 사라진다. 여태 참고 견디 게 아까워서라도 버티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죽겠다고 아우성인 백성에게 육포방망이를 들게 아니라 피부와 가슴에 와 닿는 진심어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길 발린 말로 할 때는 지나고 있다. 신고식이 요란했으니 한해 농사 잘 지어 가을에는 풍년을 맞이해야 할 것 아닌가.

덕암/김근식

서울시, 상수도 생산~공급 기후위기에 대응... 지자체 첫 '환경보고서' 발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아리수 공급 전 과정에서 설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총망라해 담은 '2020 아리수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상수도 분야 환경보고서 발간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환경보고서'란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성과, 개선노력 등의 환경 정보를 기록·축적해 이해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특히 각종 사업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표기해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진단이라는 3대 방향 아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모터펌프의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분석한 후 저효율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해 왔으며 수도 설비에 설치된 조명을 100%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태양광, 지열, 소수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총 112,391MWh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적 노력을 통해 지난 5년간 배출예정량 대비 온실가스를 총 211,338 tCO2-eq 감축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총 3천2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동등하다. 향후엔 신재생에너지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의 특성을 이용한 '수열 에너지' 활용모형을 '21년까지 정립할 예정이며 '25년까지는 공공기관 신규 건축 설계 시 수열에너지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답했다. 국제표준기구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전국 최초 도입, 수돗물을 '식품'으로 인식해 생산·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후관에 대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 이상인 총 33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와 공존하

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서울과 인접한 4개 도시에 하루 12만 424톤의 아리수를 공급했으며 국내외 재난지역에 아리수 병물을 지원했다. 급수환경이 열악한 해외지역에 수도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상수도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또 해외 상수도관계자를 초청해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과 기술을 전파하는 '서울시 상수도 정책연수' 37개국, 87개 도시, 262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첫 환경보고서 발간을 통해 서울시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타시도가 상수도관련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참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간한 '2020 아리수 환경보고서'는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 어린이 도서관 등에 배부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후 위기는 곧 물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다가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

으로도 친환경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해 환경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Advertisement for Namwon City (남원시) featuring the slogan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A tourism and culture city where history lives and breathes, we will further raise its quality). The ad includes the Namwon City logo, the Namwon National Heritage Park logo (순향남원), and a stylized illustration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충남도의회 “자치분권시대 걸맞는 의정역량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정역량 강화, 비대면 소통 방안 등 모색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상에 나섰다.도의회는 11일 소회의실에서 김명선 의장과 전익현·조길연 1·2부 의장, 홍기후 운영위원장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중점 추진업무와 정책 종합보고와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 종합 토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도의회는 올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일하는 조직 운영과 도민과 소통·협력 의정 실현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 지원 정책지원·예산분석 강화로 성과 도출 등을 목표로 도민이 체감하는 의정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치분권 3법’ 시행에 대비해 의회 인사권 조기 정착

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전담반 구성,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도 더 활성화한다.

도의회 누리집, 누리소통망과 도내 곳곳에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를 통해 민원과 정책 제안 접수는 물론, 온라인 사진·영상전 등을 열어 의정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도내 4개 의료원과 충남교통연수원,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등 7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복안이다.이와 함께 올해 본격 운영되는 조례 사후입법평가 안착을 위한 전담반 신설 비대면 회의 개최를 위한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유지를 위한 평가 지표 체계적 관리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분석보고서·의안 비용추계 지침서 발간 2022년 의회 개원 70주년 기본계

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지방자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하역노동자 생존 위기로 몰아”

‘20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 방법 지정’이 가락시장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해 12월 17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를 열고 ‘2021년 수산부류 거래 방법 지정안’을 보고했다.이에 따르면, 218개 품목 중에서 상장품목이 17개, 상장예외품목이 201개로 지정됐다.2020년에는 238개 품목 중 상장품목이 163개, 상장예외품목이 75개였는데, 상장예외품목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은 “공사가 추진하는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은 코로나19로 가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하역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도매시장 법인은 전국의 농수산물 한 곳으로 모은 뒤 경매로 다수의 중도매인에게 배분한다.경매에 붙여지는 품목을 상장품목이라고 한다.중도매인은 여기서 구입한 농산물을 소매상이나 직판상인에게 판매한다.이때 생산·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을 가락시장 내 경매장에 하역하고 경매에서 낙찰된 물품을 중도매인 등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역노동자들의 역할이다.상장예외품목은 생산·출하자가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도매인 또는 직판상인과 거래하는 품목을 말한다.



홍 의원은 “공사가 수년전 주요 수산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하역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거기에 더해 2021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하역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져서 길거리에 나왔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농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분별하게 상장예외품목을 늘려 예외품목이 상장품목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며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는 공사의 ‘2021년 수산부류 거래 방법 지정안지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하라고 요구

한 것으로 확인된다.다행스러운 결정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번 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기 때문에 농어민, 도매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외품목 지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사는 서울시의 재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홍 의원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정부와 서울시 방침, 법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을 무분별하게 펼치고 있는 공사의 행태에 많은 상인들이 우려하고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교훈삼아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최경수기자

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특히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극복 이후의 교육 수요에 맞춘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지식플랫폼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고 각 시군의 지원·협력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 많은 도민분들께 힘이 되고자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는 본 조례를 발의하였기에, 오늘 수상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며 마음에 새기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언택트’ ‘온택트’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교육 환경을 추구하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평생교육을 접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보행자 생명을 지키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서초구 관내 구축

서초구 반포, 잠원 등 24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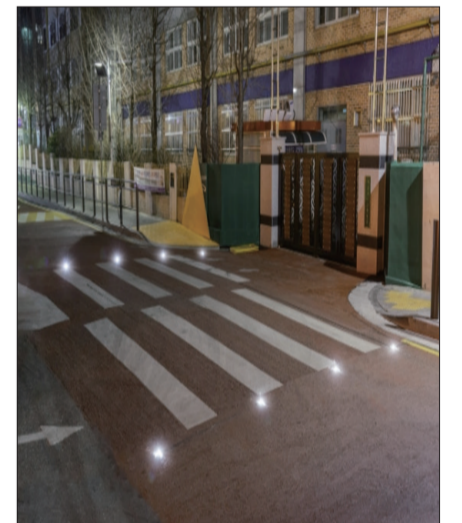
서울 서초구 관내 횡단보도 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4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사업이 원활하게 공사가 완료됐고 총 사업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LED유도등을 설치해, 공황 활주로처럼 멀리서도 LED유도등이 반딧불처럼 빛이 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보행자 안전성을 높여 주는 사업이다.지난해 8월부터 김 의원은 서초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횡단보도도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횡단보도 등 24개소가 최종 선정 됐다.금번 설치 대상은 잠원로 11개소, 신남포로 5개소, 사평대로 1개소, 강남대로 1개소, 사평대로 1개소, 서초대로 1개소, 서초네

이치힐 4개소 등 모두 24개소에 설치됐다.2018년부터 서초구에 야간 보행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가 건널목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최근 2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야간 보행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야간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야간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경우에도 시인성 확보에 유용하다”고 말했다.또한 “관계기관 및 서초구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보행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대원기자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대한민국 동심바라수로 완도에서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 ◆ **해양치유란?**
청정한 해양 환경 속에서 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만성질환을 치료, 심신을 치유하는 활동
- ◆ **완도가 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인가?**
공기 비타민인 산소용이온이 도시보다 50배 많고 바다 정화 역할을 하는 맥반석과 해조류 숲, 깨끗한 바다와 갯벌로 이루어진 청정 지역임
- ◆ **해양치유산업, 완도에 어떤 도움이 될까?**
국민 건강 증진, 일자리와 소득 창출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장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팩 집 국 : 02)2612-295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 02)2060-4147

김경수 도지사, 새해 경기 회복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지시

코로나 극복 후 맞이할 2022년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당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8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1월 월간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3%의 조기집행률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신속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서와 시군에 대해 잘 점검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 피해극복과 경기 보강을 위한 예산의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세부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김 지사는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코로나 극복 후 맞이할 2022년도는 본격적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민생이 완전 성장기로 전환돼야 할 시기인 만큼 정부도 대단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 예상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발맞춰 우리 경남도 국비확보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연구원은 '2021년 경남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

남종석 박사는 올해 경남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했다.

지난해 경남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잠정 집계된 상태다.

남 박사는 경제 관련 공공기관과 대기업 연구소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대 3.2% 수준으로 예측한 것에 비해 지역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낮은 것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다소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동남권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지방산업의 경기회복이 후방산업의 성장을 유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 및 지식생산물투자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지방산업이란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업종을 뜻하며 제품 소재나 원재료 공급 관련 업종을 후방산업으로 구분한다. 김 지사는 토론을 통해 "민간 소비는 2019년 기준 경남 총수요의 48.9%를 차지하는 분야로 단기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민간소비와 수요 증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후속대책 발굴을 위한 별도의 토론과 회의를 열자고 주문했다. 이날 경남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남해와 거제, 통영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 지사는 관련 대책을 언급했다. "특히 한파가 오면 늘 어려운 분들이 먼저 힘 들어지기 마련"이라며 "사각지대로 인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도록 시군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잘 지원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동남권 메가시티와 청년·교육인재특별도의 3대 핵심과제와 경남형 3대 뉴딜의 원활한 추진과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스마트인재 집중 양성,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도시사 중점과제를 새롭게 밝혔던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

하듯이 결혼과 임신, 출산, 보육,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방정부 책임에 가까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 대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인구대책도 소용없다"며 집중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정책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시무식에 이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새해 두 번째로 직원들과 만난 김 지사는 다시 한 번 지난해의 정책성과와 각종 수성내역에 대해 격려하고 "우리 경남은 위기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기회로 전환시켜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곳으로 동남권 전체의 새로운,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강성원/기자

조병옥 음성군수, "현안사업 추진 원동력이 될 정부예산 확보 철저" 지시



조병옥 음성군수는 1월 11일 "군민요구에 대응하고 균형현안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될 정부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날 영상회의로 주관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45개 공모사업에 선정해 137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21년 자체사업 정부예산은 1100억원을 확보해 음성군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공모사업을 비롯한 신규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 원활히 현안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 정책방향과 중앙부처 업무계획을 면밀하게 살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확보, 논리개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힘써 주기 바라며 계속사업은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병옥 군수는 "균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군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각 부서에서는 언론보도, 현수막, SNS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해 홍보를 활성화하고 각 읍면에서도 각종회의의 시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군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S병

원에서 추가 확진자와 종사자 접촉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해당 병원 종사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방역대책 장기화로 해당 사업주들의 불만과 어려움이 큰 만큼, 최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한파에 '각 부서에서는 수도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읍면장들은 마을이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독거노인,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특별 관리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피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조병옥 군수는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확대 등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가 많이 있다"며 "지난해 집중호우 시 풍수해 보험 미가입으로 재난지원금만 지급받아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 지원율 상향내용을 홍보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군민이 꼭 알아야 하는 규제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최만식/기자

허성무호 2년 6개월, '시정 운영 잘했다' 창원시민 64.6% 긍정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 "환경" 꼽아, 경제 분야도 4.7%에서 5.5%로 증가

창원시는 출범 2년 6개월을 맞은 민선7기 허성무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창원시민 64.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밝혔다. 창원시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창원시 시정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전체 64.6%가 허성무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018년 53.3%, 2019년 57.0% 긍정평가가 출범 3년 차를 맞아 11.3%p 상승했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이라는 시정 변화에 대해서는 창원시민 66.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8년 여론조사때보다 7.3%p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멈춤과 위기 속에서도 특례시 지정, 재정특례 5년 연장, 재료연구원 승격, 부산항 제2신항 명칭 '진해신항' 확보 등 굵직한 성과로 대도시의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창원시 정주여건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는 창원시민 89.5%가 '창원시가 다른 지역보다 살기가 좋거나 비슷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93.2%가 창원시 지속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창원시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에서 삶의 여건 개선여부에 대한 응답 역시 지난해 여론조사보다 10.8%p 상승한 49.7%가 '향후 지점에 비해 더 좋아질 것이다'고 답해 낙관적 전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창원 특례시 지정,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S-BRT 도입 등 지역발전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창원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환경, 도시정책, 복지 순으로 지난해 다른 분야 대비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해양은 마산만 만들기 프로젝트,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선포 등 환경 분야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농도, 마산만 수질 등 각종 환경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제분야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에서 5.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재료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다수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468억원 기업투자 유치 달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민 소통 노력에 대한 응답에서는 창원시민 65.7%가 '창원시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해 2018년 조사 결과에 비해 7.9%p 상승했다.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경제, 복지, 도시정책, 환경 순으로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다.

경제 분야의 경우 2018년 조사 때보다 6.4%p 하락했으나, 국내외 경기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접한 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2021년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 반등과 경제 V-턴을 실현, 작지만 확실한 변화체감의 일상 대변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9일~21일 사흘간 유선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3%p다.

남영민/기자

충주시, 민선 7기 공약 순조롭게 추진



민선 7기 공약사업 73건 완료 및 정상추진. 98.6% 이행률 보여

조길형 충주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대부분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충주시 공약평가 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개최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민선 7기 충주시장의 2020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 평가 결과 충주시장 민선 7기 총 74개 공약사업 중 '완료 및 이행후 계속추진' 33건, '우수' 7건, '정상추진' 33건 등 총 73건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정상추진으로

98.6%의 이행률을 보였다.

민선 7기 공약은 지역경제 균형발전 문화관광 농업농촌 평생복지 소통행정 등 6개 분야 7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과수화상병 발생 등 매우 험준운 시기에 힘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들 덕에 위기를 극복하고 민선 7기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해에도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걱정 없는 경제도시, 삶의 질이 높은 품격 도시, 청년이 찾아오는 농촌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오세현 시장 "철저한 사전 준비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신속 이행하자"

오세현 아산시장이 자체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집단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바탕으로 한 아산시 백신 접종 시행 계획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산시는 8일 보건소에서 오세현 시장 주재로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4일째 1천 명 아래를 기록한 것은 다행인 일"이라며 "하지만 아직 확산세를 잡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우리 지역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 발생 동향, 추세 등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공유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지침을 아무리 강화해도 사적 공간이나 소규모 집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언제든 집단 감염이 나올지 모르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데이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비인가 종교시설, 무자격 체류 외국인, 소규모 농업법인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예비 조사와 방역 관리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획에 맞춰 우선 접종 추진 대상별 인원수 및 명단 조사, 접종 대응 인력 및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선제적 논의 등도 함께 진행됐다.

오세현 시장은 "질병관리청과 도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정부 지침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소별 방역 추진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무료검사·무료치료' 적극 홍보, 기도원·개척교회 등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등이 논의됐다. 또, 동절기 도로 제설 작업, 한파 대비 노숙인 보호 강화, 동절기 취약 노인 보호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오세현 시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시는 제설 대응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길은 시민 참여가 없으면 작업이 힘들다 읍면동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내 집 앞 제설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자"고 말했다.

또, "동절기 시설물 안전 점검, 산불 예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등 겨울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자"고 덧붙였다.

고정화/기자



용인시의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동의안 의결

용인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와 안성시, SK하이닉스와 함께 상생협약체제를 구성해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임시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

적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에 상세한 내용을 질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심의를 마친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동의안'은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고당리, 죽너리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한 사업 대상지 인근 지자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정근기자



강화군, 군정목표 실현위한 적극 행정 전개

유천호 군수 "군민과 소통강화,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 당부"

강화군은 11일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군정운영 방향인 '지역경제 회복', '깨끗한 환경', '높은 수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서별 역점사업 보고를 겸한 자리였다. 유 군수는 먼저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안전사고 없이 상황별로 잘 대처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이번 1월 정기인사는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적임자를 배치해 전문성 확보와 군정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에 만



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고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적극 행정 구현을 일삼아하는 패러다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각종 지역 현

안을 해결함에 있어 적극 행정에서 비롯된 책임은 내가 감당할 것"이라며 "2021년도는 일상으로의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서구,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각각 300만원·200만원 지급

인천 서구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매출이 줄거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6일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호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플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편, 파티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위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버팀목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1월 11일부터 www.버팀목자금.kr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세요~

업종	지원액	신청기간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2021년 1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2021년 1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출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신청 가능하며 13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서구 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경제네트워크 지역화페팀으로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

김종남기자

구로·금천·영등포·양천 '안양천명소화 사업' 업무협약

안양천 종합관리계획 수립, 각구 사업 상호연계, 시설 중복설치 자제 등에 뜻 모아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가 더 좋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로구는 "서울 서남권 대표하천인 안양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로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가 뜻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안양천 생태복원, 휴식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로 인해 하천 관리 효율성 저하, 사업 중복 등의 단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구로구는 자치구 경계를 뛰어넘는 안양천 종합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가 화답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등 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안양천 종합 관리



계획 수립 생태복원 연속성 유지 등 각 구청 사업 상호연계 추진 안양천 내 특정 시설의 과다한 중복 설치 자제 안양천 각종 시설 공유 안양천 50리 물빛 장미길 조성 산책로 둔치 등의 연속성 확보 위해식물 합동조사 및 제거 연 1회 이상 합동회의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안양천과 인근 자연환경에 대한 통일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접 자치구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안양천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잇는 굴포하늘길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부평구가 부평11번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 액시시설인 혁신센터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공간을 잇는 '굴포하늘길'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 굴포하늘길 조성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굴포하늘길은 도시재생 활성구역인 부평동 65-17일원에 폭 3.5m, 연장 150m 규모로 설치되며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총 4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공모는 최적의 교량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도시계획, 구조, 디자인, 문화관련 전문가가 참여했다. 총 3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등 당선작에 우경건설, 2등 입선작에 ㈜경안엔지니어링, 3등 가작에 명

인기술단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은 보행교·친수공간·복지 및 주변 시설을 하나로 묶는 역동적인 공간을 제시했다. 특히 조경과 수변공간, 교량을 하나로 통합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 연출과 역동적이면서도 유려한 교량으로 디자인했다. 주요 보행 진입로를 S자 형태의 교량 선형에 대입해 굴포천 생태하천과 혁신센터와의 통일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당선작에게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권이 주어진다. 구는 일체보행교 조성이 도시재생뉴딜 혁신센터 조성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관련 사업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6월중 설계를 마무리 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장인 양주경 청운대학교 교수는 "당선작은 구조적 안전성 및 경관, 디자인계획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굴포하늘길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시재생 혁신센터의 스트리트몰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을 연결하는 보행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혁신센터 및 굴포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행교 자체가 휴식, 시민의 문화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재원기자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 모집

인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올해 마을공동체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를 선발·양성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서구 센터는 올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구 공동체와 서구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현장에 기반해 지원하고자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를 선발·양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인원은 총 7명. 선발된 인원은 2월부터 11월까지 서구 전역에서 활동하며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더 쉽고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마을공동체 상담,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등 신규 마을사업 발굴 마을활동지역 여건 조성 및 주민 간 네트워킹 지원 마을공론장 기획·운영 서구 센터 주관 회의·교육 참석 등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구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가운데 시/구 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구 센터에서 제시하는 마을공

동체로 현장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자는 활동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서구 센터에서 진행하는 직무교육을 필수 수료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이번 11월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12일간이다. 오는 25일 1차 서류합격 발표, 27일 면접 심사가 이뤄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이달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인천 서구 최초로 진행된 데 이어 2021년 올해로 세 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7명의 활동가가 현장에 밀착 지원한 결과 모두 50개 공동체가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분야별로 마을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주민과 함께, 마을 곳곳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별·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사례공유와 자원연계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구 센터 관계자는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의 활약과 서구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2021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활동가 모집

활동기간: 2021년 2월~11월
모집인원: 7명
모집연령: 2021년 1월 1일~22일 09:00시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또는 생활기반지역(18세 이상)
선정기준: 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또는 지원사업 2년 이상 유경험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 양성교육 또는 마을활동관리교육 수료자 우대
주요활동: 2021 서구마을공동체사업 참여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신규마을사업 발굴 상담 컨설팅 등
지원방법: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mcs.or.kr)
문의처: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032-568-5995)

함께 성장할 소중한 힘을 찾습니다.



서울도서관, 코로나시대 전자책·오디오북 3배로 확대...홈파·모바일로 본다

코로나19로 작년 전자책 대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비대면 콘텐츠 대폭 확대

서울도서관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고도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인기도서와 신간을 바로 빌려볼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18,000종을 신규로 업데이트했다. 오늘부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서울도서관은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1만여 종에 더해 온라인 콘텐츠를 약 3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서울도서관 전자책 대출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를 대폭 확충했다.

18,000종은 최신 도서를 비롯한 국내·외 전자책 15,000종과 전문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 3,000종이다. 특히 18,000종 모두 도서 한 권당 대출 인원 제한이 없는 '구독형' 콘텐츠다. 인기 도서라도 예약이나 대기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바로 볼 수 있다. 전자책 보유 종수 부족과 이용자 폭증 등으로 보고싶은 콘텐츠를 바로 대출할 수 없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독형' 콘텐츠는 서울도서관이 전자책 유통사에서 콘텐츠를 구독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시 접속자 수에 제한이 없고 시간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장형'은 서울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로 동시 이용인원 제한이 있어서 이미 대출된 경우엔 예약을 해야 한다. 서울도서관은 '16년 6월부터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콘텐츠 대량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의회 의원 발의로 예산을 편성해 콘텐츠를 신규로 추가하게 됐다. 서울도서관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시민들이 구독형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년 5월 초까지 매년 신간과 인기도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서울도서관 전자책 홈페이지와 뷰어 앱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서울도서관 온라인 콘텐츠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한다. 전자책·오디오북은 1인당 5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자료검색 메뉴에 있는 '전자책 홈페이지' → '구독형 전자책' 배너에서 검색하면 된다. 2021년 입수된 구독



형 전자책·오디오북 목록은 서울도서관 통합전자책 및 구독형 전자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서울도서관 회원이어야 한다. 회원증이 없다면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마친 후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월 11일 현재 서울도서관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관련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임시 휴관 중이므로 온라인 회원증 발급을 추천한다. 서울도서관 온라인 회원증 발급 방법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화면 오른쪽 상단의 '비대면 자격확인'을 눌러 회원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홈페이지 회원은 로그인 후, '비대면 자격확인'을 선택해 회원증 발급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민 내국인은 서울도

서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주소지가 타시·도지만 서울시 소재 직장·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서울 직장·학교인증'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 파일을 제출하고 회원증 발급 신청을 한다. 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발급된다. 온라인 회원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전자책 이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바로 볼 수 있는 구독형 전자책·오디오북을 3배 가까이 확대했다"며 "향후 서울시민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전자책 홈페이지와 뷰어 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성동구, 지역 소셜벤처와 손잡고 '청년 일자리 창출' 나서

지난해 사업 통해 전체 참여자의 80%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성과 거둬

서울 성동구는 이달 22일까지 2021년도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청년 내일 찾기' 사업에 참여할 소셜벤처 1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청년 내일 찾기 사업'은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소셜벤처 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소셜벤처 기업에는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는 소셜벤처 분야 현장 업무 경험 기회와 성장단계별 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해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앞선 2020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 총 15개 소셜벤처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연계해 인건비를 지원했고 그 중 12개 기업에서 12명을 정규직으로 최종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적응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

년이 근무하게 될 분야를 디지털·비대면 기술 관련 분야로 특화했다. 공모 대상 기업은 성동구 소재 소셜벤처 기업으로 비대면·디지털 기술 관련 직무분야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인건비의 90%인 월 최대 180만원을 10개월 간 지원한다. 오는 2월 중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해 일자리를 매칭하고 청년들은 각 소셜벤처 기업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업무 경험을 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 제출서류 그리고 접수방법 등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청년 내일 찾기 사업'을 통해 일 경험과 교육을 지원받은 청년들이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성과를 얻었다"며 "성동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소셜벤처 기업들과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오염기간 2021. 1. 8.(금) ~ 1. 22.(금) ※접수일 마감 18:00

오염대상 관내 소셜벤처 10개 기업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기간: 2021. 3. ~ 12. (10개월)

- 청년 급여는 월 200만원 기준으로 인건비의 90% 지원 (최대 월 180만원 지원)
- 기업은 청년 급여의 일부(10% 이상)와 4대보험료 부담해야 함
-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으로 비대면·디지털 직무분야로 일자리 제공 시 인건비 지원 가능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성동구청 13층 일자리정책과)
- 동기접수 (동기주소: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270, 13층 일자리정책과 정은혜)
- e-mail 접수 (이메일 주소: reehan1@sd.go.kr)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장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 2286-639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 참조)

약자에게 더 넓은 주차장...마포구, '배려주차공간 BPA' 특허청 디자인등록

마포구가 교통약자 전용 주차공간 표시를 위해 고안한 '배려주차공간 BPA' 도안을 최근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해 9월 배려주차공간 BPA의 디자인을 직접 고안해 교통약자 전용 주차공간에 디자인 적용하고 있다. BPA는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 Broad Parking Area의 약자로 그 디자인은 ■ 유아동반자 ■ 임신부 ■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눈에 띄는 주차공간 표시와 디자인으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 출산을 앞 둔 산모,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고 좁은 공간에서 승차하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는 현재 마포구 망원나들목, 마포중앙도서관, 마포구청사 등

공영주차장에서 배려주차공간 BPA 총 11면을 시범운영 중이다.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공간은 여성 모두를 배려의 대상으로만 파악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배려가 필요한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배려주차공간 BPA를 고안했다. 기존의 정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입혀 탄생한 정책 재혁신 사례로서 그 도안과 명칭의 독창성은 이번 특허청 디자인등록으로 이어졌다. 배려주차공간 BPA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주차면 대비 넓은 폭이다. 기존 주차장보다 너비 기준 0.3~0.5m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 총 2.8m에 달하는 폭 덕분에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승차할 수 있다. 주차면의 위치는 최대한 출입구와 근



접한 곳에 배치된다. 또한, 디자인 색상은 남성-파랑, 여성-핑크 등 기존 통념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미를 담아 연보라색을 채택하고 있다. 구는 향후 BPA 디자인 사용권을 전국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하는 구상도 모색 중이다. 또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도 이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좁은 주차공간 때문에 더욱 움직이기 힘들었던 주민들이 배려주차공간을 활용해 조금이나마 대외활동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책과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연다. 평택항,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항만으로 도약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책과 함께하는 제1회 독서 마라톤 대회를 연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독서와 마라톤을 재미있게 접목시킨 독서진흥운동으로 독서 1쪽을 2m로 환산, 참여자가 마라톤 홈페이지에 스스로 독서기록 일지를 작성해 신청한 독서코스를 완주하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독서문화증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독서 마라톤 대회가 신축년 1월 15일 출발해 11월 30일 끝인한다고 밝혔다. 대회코스는 개나리코스, 잣나무코스, 보남산코스, 자라섬코스 등 총 12개 코스로 진행된다. 개인 독서량에 따라 코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군립도서관 회원으로 9월 30일까지 도서관 독서마라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독서마라톤 운영기간 동안 대출권수 2배 확대 및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코스별 최고 다독 완주자 시상 및 완주 인증서가 제공되는 등 독서마라톤 첫 대회가 독서의 생활화는 물론 인문학적 소양 증진과 독서문화 저변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



하고 있다. 앞서 군은 인터넷 및 대형서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서점을 살리고 군민들에게 보다 빠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지난해 7월부터 관내 서점과 연계해 시행한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본 서서비스는 도서관에 희망도서 구입을 신청하거나 소장도서를 빌려 읽고 반납하는 기존의 도서대출 시스템과 달리 지역주민들이 동네서점에서 필요한 책을 빌려 본 뒤, 다시 반납하면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방

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정서적 피로감을 줄이고 일상에서의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임시휴관이 계속됨에 따라 군민들이 독서를 즐기고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예약대출서비스, 스마트 도서관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근기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2030년까지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항만관리·운영, 개발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른 평택항의 기본계획에는 현재 운영 중인 64선석에서 2030년까지 9개 선석을 추가해 73선석이 개발된다.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1종 항만배후단지 외에 물류기업과 제조기업 입주 가능한 1종 항만배후단지 261만㎡와 상업, 주거, 문화 등 도심 기능이 도입되는 2종 항만배후단지 184만㎡가 개발되며 항만 물동량 증가와 내륙 연계수송망 강화를 위해 항만 배후도로·진입도로·인입철도 계획이 수정 및 신규로 반영됐다. 또한 대중국 관광객을 위한 新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고 靑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주변지역에는 약 10만㎡의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LNG 병



김령 부두, AMP시설도 신규로 구축된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와 개발예정지에 50만평 규모의 해양생태공원숲을 조성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평택항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이 작년 대비 7.8% 증가된 약 79만TEU를 처리했

다. 또한 전자상거래화물은 인천항에 대비 300만건이 많은 1,300만건을 처리해 건수기준 전국 1위를 차지해 평택항 발전전망을 밝게 했다. 평택시에서는 고시된 4차 항만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평택항 개발계획의 적기개발 추진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글로벌 기업의 국내유치 위해 경기도 독자적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발간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기업의 탈세계화와 리쇼어링, 국내 투자환경과 제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해외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정책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동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내 일반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외투단지의 생산성이 크게 나타난다. 외투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은 810억원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당 매출

액 64억원보다 12.6배 높게 나타났다. 도지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면적당 매출액'은 42억원으로 산업단지에 비해 1.4배 높았다. 또한 노동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고용자 1인당 매출액'은 8억원으로 산업단지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외투기업의 지속적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투자유치 관점에서 경기도 내 산업혁신과 양질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해 경기도에 대한민국의 투자활동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혁신·상생·지속'이라는 4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기존 투자전략에서 탈피한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을 제시했으며 잠재 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중·동남아 국가의 급부상에 따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2019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경기도에서도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본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용보조금 지원은 투자상당 시 협상력을 강화해 투자 성사율을 높이는 한편 효율임금 제시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민간일자리 창출, 입지여건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년간 약 15개의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각종 관리비용과 이차비용을 발생시키는 미입대부지를 해소해 경기도 재정여건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근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망한 글로벌기업 유치가 경기도 내 경제성장 견인고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용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정근기자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고시

김포시는 관내 경기도기념물 제159호 수안산성을 비롯한 5개소가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변경 고시 됐다는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유형문화재 제146호 심연원 신도비·유형문화재 제147호 심강 신도비, 기념물 제47호 한재당, 기념물 제159호 수안산성, 문화재자료 제109호 권상 묘역의 허용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문화재 주변 1구역의 경우 대부분 원형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 건축행위 등에 난항이 있었으나, 이번 허용기준 변경을 통해 일부 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건축, 토목행위 등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은 각 문화재별 유형 및 현지어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발전의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경기도보를 통해 2020년 12. 31. 고시 됐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번 허용기준 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김포시 '청년 내일옷장'사업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기

청년 취업준비 부담 경감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구직자 245명이 총 314회 무료 면접정장을 이용했다. 성별로 여성이 229명 남성이 85명 이용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60명 30대가 54명으로 20대가 30대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많았다. 무료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는 관내에 주소 소를 둔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인당



최대 3회 회당 3박4일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준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내일옷장' 사

업을 계속 이어나기로 했다. 이 달 중으로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2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양평군,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가맹점으로 신청하세요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정식오픈(1월 말 예정)에 앞서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근 코로나19 인해 비대면 사회서비스로 유통구조가 변화되며 민간영역의 배달앱 수수료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경기도가 개발한 낮은 수수료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우선 적용 지자체로 선정돼 서비스 오픈 준비를 해왔다.

기존 민간영역의 배달앱이 최대 16%에 이르는 수수료를 가진 데 비해, 배달특급은 최대 3.5%의 저율 수수료로 운영된다. 월 매출 2천 5백만원 규모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민간배달업 대신 배달특급 이용시 월 2~300만원의 실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배달특급'의 가맹점으로 가입을 원하는 업주는 홈페이지(<https://www.specialdelivery.c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배달특급'을 검색 후 나오는 신청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스마트폰에서 "배달특급" 앱을 설치하면 되고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결제시 5%의 캐쉬백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받을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금번 배달특급의 양평군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배달특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양평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공공·상생의 출발
배달특급
가맹점 사전 신청 접수안내

- | 모집기간 | 모집 시작일 ~ 2/28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대표 메뉴 이미지, 메뉴판 이미지
- | 신청주소 | www.specialdelivery.co.kr
- | 문의사항 | 1599-9836

점주님! 배달특급이 혜택 파격입니다!

- ✓ 지역화폐 온라인 사용가능
- ✓ 중개수수료 1%(21년 특별운영)
- ✓ 광고비 없음

화성시,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바꿔드려요

화성시는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교환해주는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실시되는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한 폐건전지 1kg을 새건전지 1세트로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지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폐건전지의 보상교환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며 오는 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폐건전지 발생량은 연간 15,272톤에 이르지만 재활용률은 6.9%에 불과한 실정으로 폐건전지를 분리배출하면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 버리던

폐건전지를 모아 교환에 적극 동참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가짜배기 배려
새건전지 출게! 폐건전지 나오!
건전지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활용되는 폐건전지 종류는?
수은건전지, 산화은건전지, 니켈 카드뮴건전지, 리튬건전지, 알칼리건전지, 니켈수소건전지 등
폐건전지 발생량은 연간 15,272톤
재활용률 1,066톤 - 6.9%에 불과한 실정
나머지 93.1%는 매립되거나 소각, 귀금속기
폐건전지를 분리배출하면,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폐건전지를 모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 오시면 새건전지를 드립니다."

교환방법

폐건전지 중량 상관없이 1kg
새건전지 1세트 (2개)

(교환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환경사업소 · 화성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백군기 용인시장, 폭설·한파 2차 피해 대응 점검

"폭설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위해 꼼꼼하게 조치 해달라" 당부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처인구 유립동, 기흥구 보정동·신갈동, 수지구 죽전동 등을 방문해 폭설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이를 연속 현장 점검에 나선 백 시장은 관계자들을 만나 한파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직접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백 시장은 "폭설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꼼꼼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미끄러질 수 있는 이면도로·육교 등을 주의해서 작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백 시장은 새벽 4시부터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염화칼슘 추가 살포를 지시하고 관내 주요 도로 노면 상황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기흥구 보정동 행



정복지센터 방문한 백 시장은 기흥구 이·통장들과 영상 회의를 갖고 낙상 등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완전한 제설 종료까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날에도 백 시장

은 관내 주요 도로를 돌며 현장 점검을 마친 후 긴급 제설 대책 회의를 주재해 각 읍면동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성욱기자

안성남 구리시장, 동파 대비 '24시간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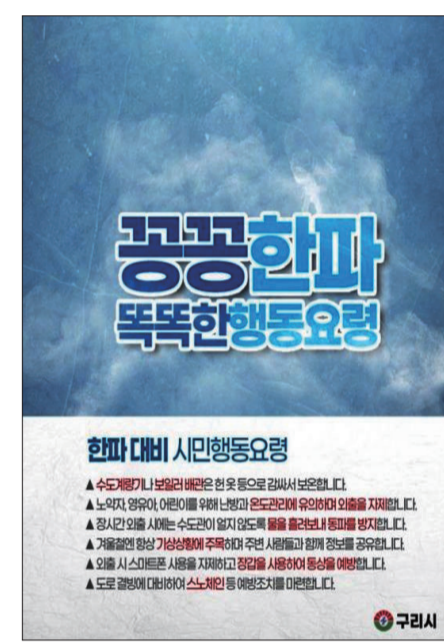
수도계량기 등 동파방지 위해 야간·외출시 수도물 흘려놔야

구리시는 최근 강력한 '북극 한파'에 따른 상수관로 누수 복구 및 계량기 동파 등 동절기 급수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한 '24시간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검침원들이 계량기 보호통 보온상태를 전수 조사하고 보온조치가 미비한 계량기는 헌 옷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보온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들이 사전에 안전하게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계량기통의 보온조치를 해도 동파가 발생 될 가능성이 높아 계량기 동파 예방 및 건축물 내선의 수도관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수도물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 좋으며 수도계량기 등 동파예방을 위해 가늘게 흘리는 수도물의 양은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환산시 10시간 기준 약 50원 미만이다"고 밝혔다. 안성남 구리시장은 "동절기 수도관 동파 예방을 위해 외출·야간시에는 수도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열어둘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동파사고 대응을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구축해 수도물 공급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공공한파 특목한행동요령

한파 대비 시민행동요령

- ▲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온은 헌 옷 등으로 임시 보온한다.
- ▲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한파 대비 비상연락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다.
- ▲ 장시간 외출 시에는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물을 흘려놓는 등 예방한다.
- ▲ 겨울철 한파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주택 내 수도관을 점검한다.
- ▲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고한다.
- ▲ 도로명주소(대안주소)는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한다.

진흥원 기업입주시설 입주기업 '텔레투게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고양시 산하 고양시식정보산업진흥원 기업입주시설에 입주해 있는 ㈜텔레투게더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중 비대면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K-비대면바우처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후 간단한 중소기업 신청/선정 절차를 통해 정부 지원금 최대 400만원으로 비대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모집 공고는 2021년 1~2월 중 중소기업벤처부 사이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텔레투게더는 2002년 설립된 국내 1위 컨퍼런스콜서비스 사업자로서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대표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공과 장비의 구축 등 원격지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텔레컨퍼런스 종합 사업자이다.
김영근기자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기업당 360만원 지원 받고
컨퍼런스 및 화상회의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400만원(장기) - 360만원(지원금) - 36만원(비대면금)
연간 36,000원만 고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꼭 상담 받으시고 추가 혜택도 받으세요!

문의처: 1599-2255 (주)진흥원 '텔레투게더' 센터(11-2층 중소기업지원사업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9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농촌 체험 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스스로 학습성취인증제 문항 검토·개발 추진

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건강한 학습 습관 길러

경북교육청은 건강한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스스로 학습성취인증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문항 검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스스로 학습성취인증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학생 스스로 도전하는 개별 맞춤형 학습성취 온라인 평가 시스템이다. 지난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55,000여 문항을 확보해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기초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 문항에 대한 전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35명, 중학교 교사 27명으로 문항검토위원을 구성했다.

2015 교육과정에 맞게 문항이 배치되고 구성되었는지,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을 적절하게 구분했는지, 발문, 제시글, 답안 등의 구성이 적절한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무결점 문항 제공을 목표로 진행하

고 있다. 또한 교과별 학년별로 개발된 문항이 적은 초등학교 4개 교과와 중학교 2개 교과의 문항 개발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 33명과 중학교 교사 14명을 문항 개발위원으로 위촉해 오는 5월까지 전 교과에서 기본 문항을 확보해 제공할 수 있도록 문항 개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스스로 학습성취인증제 응시자 수는 22,000여명으로 42,000여명의 학생 중 52%의 학생이 응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항 검토와 개발 작업이 완료되면 오류 없는 문항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응시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스스로 학습성취인증제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경북 기초학력 지원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습관을 길러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상주시 친환경인증 '인삼' 재배면적 전국1위

친환경 농업의 중심 상주시

친환경농업의 중심 상주시가 친환경인증 인삼 재배 면적에서 전국 시·군 중 1위로 나타났다.

상주시친환경인삼연합회에 따르면 상주시의 친환경인삼 재배 면적은 58ha이며 고품질 인삼생산 기술교육, 시설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인삼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인삼은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인삼연구소에서 개발한 매뉴얼을 적용해 '친환경 인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병해충 발생 빈도를 85%까지 감소시켜 친환경 방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재배 환경 관리가 용이해 방제 인력과 경영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재배로 기존 대비 3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신기술 보급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안전한 친환경인증 인삼을 확대 보급해 인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상주의 친환경인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 교육 및 마케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경주시, 영하 10℃ 밑도는 '최강한파' 속에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동참 '당부'

계량기함에 보온재 채워 넣고 수도꼭지 약하게 틀어 달라 '당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일간 최저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보되자 시민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진희 경주시 상수도과장은 “최강한파에도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계량기함 사전 보온조치 등 동파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면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수도계량기 동파는 영하 10℃ 이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한파주의보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으려면 계량기함에 현 옷이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를 채워 넣

고 비닐로 계량기함을 넓게 감싸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외출하는 경우 수도꼭지를 약하게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하면 동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시는 시민들에게 40초에 1회용 종이컵 한 컵 정도를 채울 정도가 적당하며 이렇게 배세 틀어 놔도 수도요금은 100원 미만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말 자체 기동복구반 3개반을 편성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24시간 긴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 시에는 상수도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기상청은 8일 영하 14℃ 9일 영하 14℃ 10일 영하 11℃ 등 3일간 경주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를 예고했다.

한반식기자



경북교육청, 우수 고졸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사다리 강화

특성화고 장학금 학생 1인당 연간 72만여 원 지원

경북교육청은 2021학년도에 도내 특성화고 모든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학생 1인당 연간 72만여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84억원을 투입해 2021학년도 도내 특성화고 전 학년 학생 11,760명에게 기숙사비, 식비,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학생 1인당 연간 72만여 원을 지원한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입학금

과 수업료를 지원하던 교육부 장학금 지원 사업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최초로 2~3학년 대상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했고 올해 전 학년으로 그 범위와 1인당 지원 금액이 확대된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이 선취업 후학습을 방향으로 하는 직업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해 특성화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또한 이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우수 고졸 기술기능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가 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유식대기자



가수 영탁, 고향 안동서 사랑의 담요 나눔 실천

가수 영탁, 겨울 한파로 인해 힘든 이웃에 희망 전달

올 겨울 강추위가 매섭게 몰아치지만 가수 영탁의 이웃을 위한 나눔의 열기는 식지 않고 우리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가수 영탁은 고향 안동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담요 100개와 머플러 30개, 핸드크림 10개 등 겨울나기 물품들을 마련해 안동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미스터트롯 출신의 가수 영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가수 영탁은 “겨울나기 물품이 올 겨울 매서운 추위로 인해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진희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잊지 않고 고향 안동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시 나눔실천 확산과 행

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예천군, “기온 뚝 매서운 한파 한랭질환 주의 하세요”

고령자·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및 건강수칙 준수 당부

예천군은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자 2월 말까지 군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한랭질환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이나 동상, 손·발, 얼굴 등 몸의 일부가 얼어 허는 동창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매년 12월~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랭질환자는 50대가 가장 많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질환이 많았으며 환자 30%는 음주 상태로 기온이 급감하는 밤부터 아침 사이 사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하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외출 시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해 군민들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술을 마시는 경우 일시적으로 신체에 열이 올라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예방수칙을 꼭 준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영양군, 2020년도 지방도 정비 및 재해응급복구 우수기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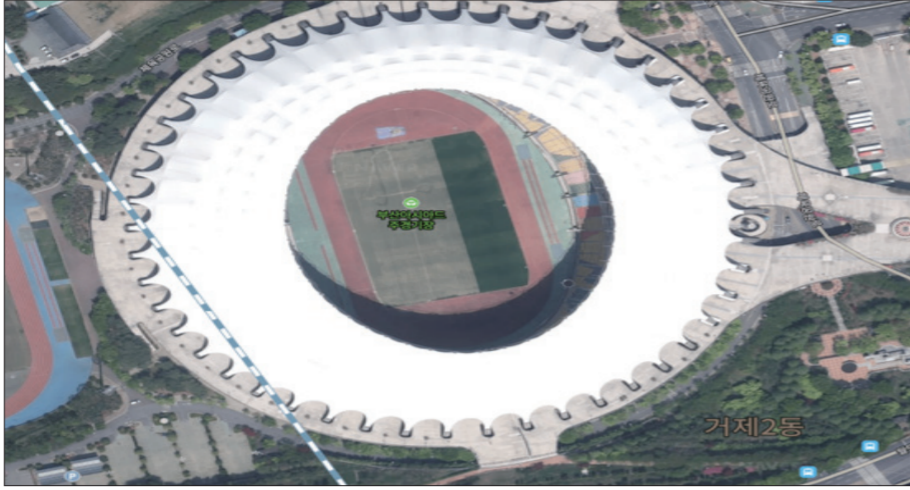
영양군은 경상북도로부터 2020년도 지방도 정비 및 재해복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영양군은 올해 지방도 177.1km와 군도 105.0km 및 농어촌도로 294.7km 구간에 대해 불가울 2차례 정비를 실시해 도로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연달아 지나감에 따라 곳곳에서 도로범람과 침수가 발생하고 가로수의 전도로 인해 통행이 막히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

아 수상하게 됐다. 영양군은 2019년부터 26억원을 투입해 ‘하천 물길 살리기 사업’의 추진으로 관내 반변천의 하천 내 자생하는 버드나무 등 유수를 방해하는 지장목을 제거해 온 것이 도로 범람과 침수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군의 열악한 교통환경은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다”며 “우리 군의 동맥인 31번국도 선형개량사업이 채택되기 위해 중앙부처와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으며 기타 열악한 도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부산시, 선제적 방역에 총력 “부산 택시 안심하고 타세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 운영



부산시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확진자 동선 가운데 택시 관련 동선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부산시가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잠재된 코로나19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부산지역 택시 종사자 약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선별검사소는 연제구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인 만큼, 검사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진행해 감염 위험을 낮출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누구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 4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산업공단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앞서 1주 차에는 부산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동부지역 산업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안·명례·정관산단에서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했으며 총 400여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임시선별검사소와 이동 선별검사소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검사가 필요한 시설과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남해군 시금치 ‘보물초’ 품종 비교 평가회 개최

고공행진하는 보물초 시세만큼이나 높아지는 당도



남해군은 ‘보물초’ 특유의 고풍도를 홍보하고 일선 농가와 유통업자에게 여러 품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일 ‘보물초 품종 비교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위원으로는 군의원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농협중앙회·마늘연구부·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 이번 평가대상 품종은 군이 보물초 다양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내 시범포에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재배한 동원농산종묘의 금동초, 해성씨드플러스의 사계절, 사계절플러스, ㈜생농의 카르세니아, 사카타코리아의 탐스타, KS종묘의 참조은플러스 등 모두 6종이었다. 평가항목은 당도와 뿌리발육상태, 단작업의 용이성 등 3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당도는 한 시료당 각각 2회에 걸쳐 측정했으며 사계절플러스 14.3brix, 사계절 13.4brix, 카르세니아 11.8brix, 금동초 12.0brix, 참조은플러스 10.2brix, 탐스타 9.8brix 순으로 나타났다.

뿌리발육과 단작업용이성 항목은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었으나 대다수의 의견이 뿌리발육 상태는 카르세니아, 사계절플러스, 수확 후 단작업용이성은 사계절, 사계절플러스가 상등급으로 평가됐다. 최종 추천품목은 사계절, 사계절플러스, 카르세니아 품종으로 압축됐다. 임태식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보물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품종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를 정리해 우리토질에 재배하기에 유리한 품종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월7일 현재 보물초

출하 물량은 3,558톤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으나, 판매 금액은 8,148백만원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물초 별크는 키로그램당 평균가가 4,478원, 단뭉음은 4,916원으로 경매가가 형성되고 있다. 민성식 유통지원과장은 “기온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우스 시금치 출하량이 줄고 보물초의 당도가 계속 올라 소비자들이 반응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다음달 정월대보름까지 고 내다봤다.”

최만식기자

웹툰으로 소환된 ‘씨름의 전설’... ‘씨름의 성지, 창원’ 알린다

11일부터 매주 월·목 1편씩 연재



창원시는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씨름의 전설들을 웹툰으로 소환시킨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웹툰 ‘씨름의 전설’을 웹툰 전문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와 창원시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월, 목 1편씩 연재한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웹툰은 주인공 남자 중학생이 동영상을 보고 씨름에 매료돼 씨름 명문중학교로 전학하게 되고 마산 씨름 레전드들의 기술을 익히며 차세대 씨름의 전설이 되어 간다는 내용이다. 창원시의 웹툰 제작은 ‘이 좋은 걸 할배들만 보고있었다니.’ 할만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몇 십년만에 돌아온 씨름에 대한 관심을 다시 고조시키고 중장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 전국 최초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씨름대축전을 개최하는 등 씨름 본고장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씨름은 균형 감각과 근력, 기술, 심리 등 이른바 ‘완전스포츠’로 여겨져 유치원 활동 수업에서부터 읍·면·동 체육대회, 방송사 아이돌 체육대회프로그램의

단골 종목으로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스포츠이며 문화다”며 “이런 씨름의 본고장이 마산이었고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계획을 통해 그 화려한 부흥을 다가올 창원특례시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정관박물관, 6~7세 대상 신축년 맞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따뜻한 우리집에서 놀면서 배우는 ‘물랑카우’



부산시 정관박물관은 ‘흰 소띠 해’를 맞아 6~7세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물랑카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보호자의 준비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 먼저, 보호자는 활동지와 젤리 만들기 재료, 씨앗·배양토·화분 등이 담긴 교육 꾸러미를 우편으로 받은 후 한천·색소 등의 젤리 만들기 재료를 이용하고 동봉된 안내지를 참고해, 동물 인형을 품은 젤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어린이들은 교육 영상 속 선생님과 함께 물랑한 젤리 속에 숨은 동물 인형을 발굴해 보는 촉감 체험 후 ‘소’의 의미와 관련 유물에 대해 알아보고 친환경 화분에 씨앗을 심고 동물 인형으로 꾸며보는 시간을 가진다. 아이들은 직접 심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은 별도의 비

용 없이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관박물관 누리집에서 1개 계정당 1조씩 할 수 있으며 신청 100가족으로 마감된다. 이후, 정관박물관은 1월 19일부터 교육 꾸러미를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배부하며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정관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교육 영상을 공개한다. 한편 이번 교육과 더불어 교육 꾸러미로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교육 후기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거나 교육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3가족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박재혁 정관박물관장은 “2021 신축년에도 정관박물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오랜 기간 계속된 가정 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린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2021년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보다 나은 군산' 실현할 것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확립과 사람중심의 안전환경 구축 중점 추진

군산시는 2021년 신축년 새해 '시민체감 경제활력과 균형있는 행복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아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보다 나은 군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11일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신년 브리핑을 갖고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확립'과 '사람중심의 안전환경 구축'을 중점 추진 목표로 설정한 2021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시민참여 발전사업 중점 추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소상공인·청년·사회적경제 집중 지원 등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민주도 자립경제 확립, 농수

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사람중심의 안전환경 조성으로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축,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동체 기반의 포용적 복지 실현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먼저 올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도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과 발전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2월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200MW 규모의 새만금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 궤도에 크게 뒀에 따라 시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이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지난해 공모 선정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내 해상풍력 입지여건 및 개발환경 등 기초조사를 통한 해상풍력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 향후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국가중립인증단지 구축 사업을 비롯한 그간 추진해온 관련 연구기관들이 차례로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진해 온 서남부권에 이어 올해에는 동부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기료 절감 등 시민의 부담을 경감해 시민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국제 박람회'도 처음 개최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신기술의 국내외 홍보 및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군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코로나19로 더욱 위기에 빠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소비창출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올해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 상품권에 이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상품권 발행 수단을 다양화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월 전격 출시되어 비대면 시대에 전국적 수범사례가 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가맹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한 다양한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과 상권트레드스 2년차 사업 추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애용운동 및 군산사랑 시민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전통명가 발굴육성, 특별보증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별 운영과 수제작 작품플랫폼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산형 청년수당,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취업 지원 등 여러 지원사업을 시행해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해 문을 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올해 초 착공되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적·물적 거점화를 추진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미래형 산업으로 다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도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지정된 '감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그린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그동안 꼼꼼히 준비해 온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올해 초 공모 선정을 앞두고 있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노사간 및 원하청간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올해에는 새만금에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RE100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SK 컨소시엄의 2조원 규모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 조성 등과 연계한 신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자동차 대체부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산이 중고자동차 및 대체부품 시장의 메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지원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 축적 및 기반조성으로 건설기계 산업을 군산 대표 브랜드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전략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사업으로 확보한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사업'과 '조선해양설치인프라 구축사업'은 침체된 조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군산항 물동량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에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촌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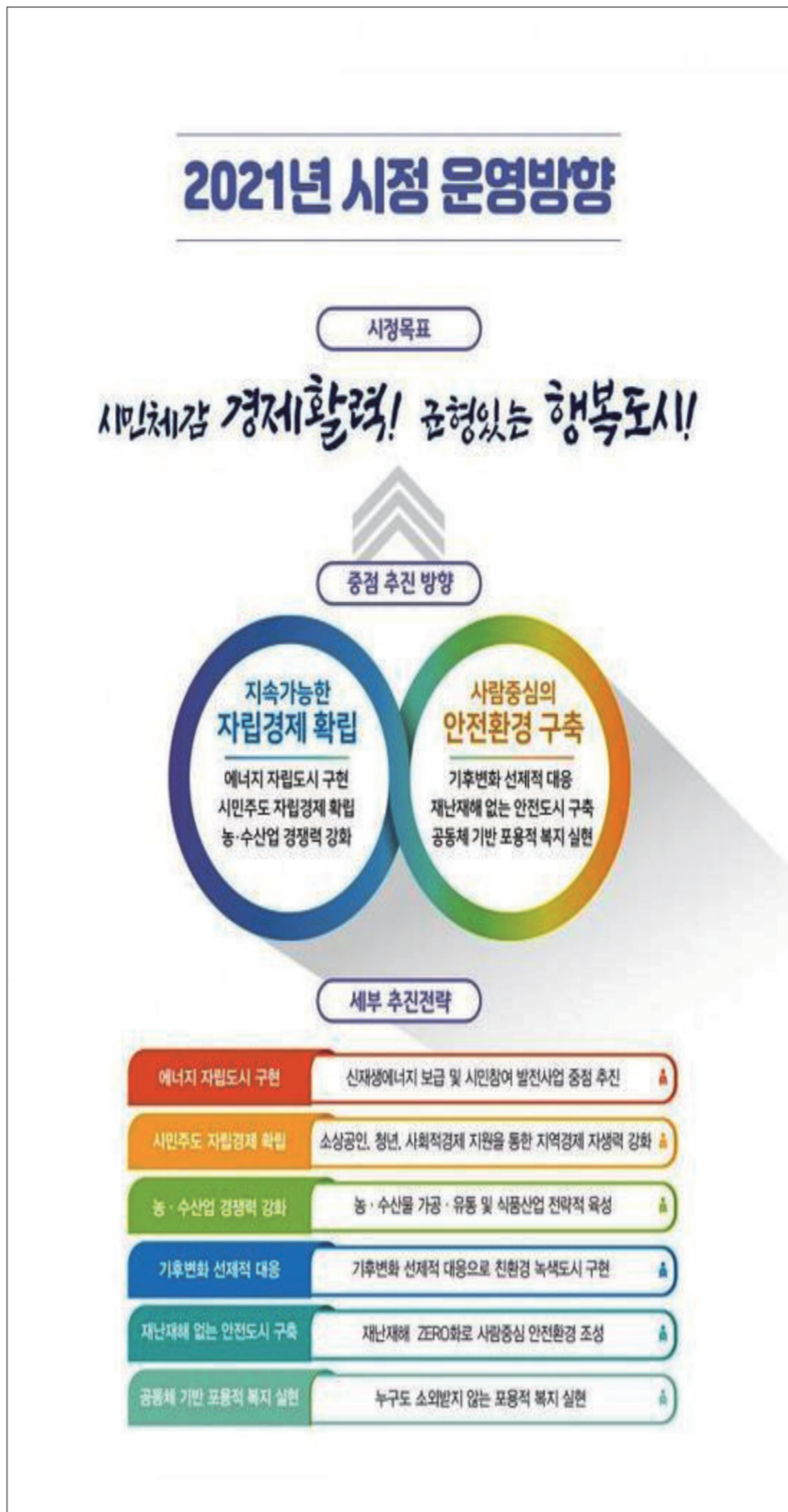
지난해 9월에 출범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본격적 운영으로 지역 푸드플랜 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기획생산 농가 확대 발굴과 지역농산물 도농순환체계 확대 구축을 통해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해역 특성에 맞는 신제품 어장 조성 및 수출에 특화된 양식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수산식품 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나아가 어선 어업 체계개선 및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소득 극대화도 중점 추진한다. 시계적 연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사업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도심 속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집중호우 등을 유발하는 기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녹색환경 조성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도심 속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집중호우 등을 유발하는 기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녹색환경 조성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도심 속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집중호우 등을 유발하는 기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녹색환경 조성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특수포장 등을 시행토록 해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도 유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그린뉴딜 시대에 맞춰 금강미래체험관 전시장 리모델링을 통한 도내 대표 기후변화 교육장을 조성해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힘을 보태겠다.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감염병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과 예방 및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를 통한 공공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생명, 건강,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한 만큼,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제적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음압시설을 갖춘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전문성을 강화한 방역안전 감시단 운영 등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공모 선정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비롯한 주요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환경오염 선제적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등 화학물질 사고 대응시스템 마련과 수질오염 감시를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상생형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복지지원 대상의 확대 발굴 및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가족센터 건립으로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

제24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개최

남원시가 '제24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을 개최한다.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은 남원 목기의 명성을 잇고 전통기술의 계승과 옷칠 목공예품의 대중화를 이끌 작품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단위 목공예 공모전이다. 나무를 재료로 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옷칠 목공예부문'과 '갈이 부문'으로 나누어 2021월 4월 2일부터 4. 4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분야별로 단계적 심사를 거쳐 4. 14일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며 선정된 작

품 37점에 대해 총 1억2천만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수상작은 남원시 예루뎀 및 서울 인사동 KCDF 갤러리 등에 전시될 예정이며 상품성이 높은 작품에 대해서는 상금과 별도로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예인들에게 역량발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옷칠 목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전주 풍남학사 신규 입학생 모집

전주풍남학사,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전주 출신수도권 소재 대학생 대상 35명 모집

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학업성적과 생활정도 등을 심사한 뒤 입학생을 선발할 방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희망자는 전주풍남학사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풍남학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입학생은 다음 달 15일 전주시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김승일/기자

목포시, 톡톡 튀는 웹툰으로 관광지 소개 '눈길'

세대별 취향 공략하는 만화, 영상으로 관광자원 소개

목포시가 톡톡 튀는 관광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고 있다.시는 누구나 목포 관광지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 홍보물과 웹툰 영상을 제작해 호기심과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웹툰은 XYZ세대를 아우르면서 취향을 저격하는 3개 섹터로 구성됐다.X세대 저격 콘텐츠는 근대역사관1.2관, 시화골목, 유달산 등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의 코스가 담겨져 있다.

Y세대 코스는 먹거리가 풍부한 '맛의 도시' 목포를 부각했다.

흥어삼합, 세발낙지, 갈치조림 등 목포9미와 시가 개발한 주전부리 3종을 소개한다.

Z세대 코스는 즐길거리가 넘치는 목포다.해상케이블카, 스카이워크, 유람선 크루즈, 춤추는 바다분수 등 세대가 달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랑, 쾌활, 발랄한 목포의 대표적 관광지를 안내한다.웹툰 영상은 3분 정도 분량으로 친근한 캐릭터가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목포 주요 관광지들이 한층 흥미롭게 알려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시는 웹툰으로 보는 만화 리플릿을 안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해 지역 사회알기 등 각종 체험학습 장소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웹툰 영상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관광객에게 목포를 보다 쉽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스마트 관광시대로 접어들면서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만큼 매력

적인 콘텐츠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목포 관광이 더욱 친숙하고 널리 알려지도록 페이스북 등 SNS와 카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나주시,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나주시가 올해 난방비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 해 정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 조치로 이달 11일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높은 저녹스 버너를 장착해 연소량을 시간당 0.1t미만으로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다.특히 배기가스 배출 시 방출되는 열을 흡수, 재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간 13만원 상당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저녹스라는 명칭은 보일러 가동 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여 준다 해서 붙여졌다.

시는 올해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일러 1대 당 일반가구는 2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외 비용은 자가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를 희망하는 나주시 관내 주택을 둔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다.

당해연도 이전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공공기관·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단 각 가정의 구조나 환경 등 설치 여건을 고려해 접수 전에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나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은 물론 연료비 절감 혜택이 있는 이번 사업에 보일러 교체를 앞둔 가정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보성군 특산품 캐릭터 BS삼총사 지상파 타고 전국으로~

인형탈 입고 땀 뻘뻘... 농가와 상생 꿈꾸는 보성군 공무원 노력에 시청자 '감동'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보성군 특산품 캐릭터 BS삼총사가 지난 7일 광주MBC '오매 전라도'를 통해 전파를 뒀다.

보성녹차, 벌교꼬막, 보성키위를 모티브로 탄생된 BS삼총사는 15분 가량 진행된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귀여움을 무기로 지역 특산품의 장점과 매력 알리며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BS삼총사가 직접 준비해온 제철 보성키위를 맛 본 손민지 아나운서는 "평소 키위를 좋아하는 데 우리나라 키위 생산량 1위가 보성이라는 것은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며 "과즙이 살아있고 단 맛이 적절히 어우러져 정말 맛있다"고 말했다.벌교 참꼬막을 먹은 김귀빈 아나운서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이 맛에 한 번 빠지면 전 세계인도 헤어 나올 수 없

을 것"이라고 시식평을 남겼다.보성군 대표 특산품 캐릭터 BS삼총사는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댄스와 질문들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댄스 후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특히 마지막 MC의 요청으로 인형탈을 벗은 모습이 공개됐을 때 땀을 뻘뻘 흘리는 보성군 직원들의 모습이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보성군은 외부 용역을 사용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캐릭터 탈을 쓰고 홍보활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광주 MBC 유튜브 채널에는 BS삼총사와 보성군을 응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다.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특산품 캐릭터인 BS삼총사를 외부 용역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만들

김영만기자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적 편익 창출과 영향 모니터링 부분 우수

전북 고창군의 고인돌과 운곡습지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됐다.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부에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현·교육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3년마다 생태관광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거쳐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창군은 2014년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3년차 재지정에 이어 6년차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재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환경부 생태관광지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3개 영역에서 23개 항목으로 평가됐다.

특히 고인돌·운곡습지는 지역 일



자리 창출, 경제적 편익 창출과 영향 모니터링 부분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됐다.6년차 생태관광지 재지정 기준 70점을 무난히 넘긴 87점으로 제5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대상 14개소 중에서 상위권 점수를 기록하며 재지정됐다.따라서 고창군은 고인돌·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국비 보조 및 운·오프라

인 홍보, 컨설팅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창군청 김수동 생태환경과장은 "올해도 다양한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인돌·운곡습지의 우수한 생물다양성을 알리고 지역주민이 주도해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정선군,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진행

정선군이 미래의 주역인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학교 명문고 성장을 위한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군은 관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진로 진학 컨설팅, 학력 신장 등 우수한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가 지난 1월 9일 온라인 반 배치시험을 시작으로 개강했다.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13억8천만원의 투입에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보다 질 높은 양질의 강의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주 3일씩 45주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강식을 생략하고 비대면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는 관내 7개 고등학교 총 9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저

녁 수시전형을 대비해 4시간씩 논술 수업을 진행하며 주말에 오후 4시간의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관련 수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매월 1주는 교과 과목 외에 시사토론과 자기소개서 작성 및 지도, 면접기술 등 개인별 맞춤형 비교과 부분도 함께 지원한다.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교육 경쟁력과 정보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개인의 적성을 고려해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지역 특성상 진학이 어려운 논술전형분야와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구술면접 등 진학컨설팅으로 2020년 대입 정시 모집 결과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건국대 등 수도권 대학은 물론 주요 국

립대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더불어 사북공공도서관에서는 폐광지역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4억의 예산을 들여 융합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해 인재육성아카데미에 유입되게 함은 물론 우수한 지역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조기교육에 힘쓰고 있다.지역인재와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 참여 지난해까지 32,39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2021 평창평화포럼, “평화인재양성프로젝트”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 선도할 차세대 리더 모집

강원도·평창군이 주최하고 2018 평창기념재단·강원일보·춘천YMCA가 주관하는 평화인재양성프로젝트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리더를 모집한다.평화인재양성프로젝트는 2021 평창평화포럼,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올림피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평화의 땅 강원도와 평창에서 청소년이 다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14세~19세 청소년 10명 이하로 구성된 강원도내 청소년동아리, 중·고등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 소속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평화를 주제로 한 활동이 운영될 방침이다.선정된 동아리는 최대 2백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온라인

발대식, 2021 평창평화포럼, 지역별 견학프로그램인 ‘피스투어’, 평화인재 수료식에 참석하고 동아리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참가희망자는 평창평화포럼 홈페이지 또는 춘천YMCA 홈페이지에서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해 2021년 1월 1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내 10개 동아리 학생 100여명이 참가한 지난해 평화인재양성프로젝트에서는 평화선언문 작성, 청소년 정서 지원 활동, 코로나19 극복 위한 마스크제작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으며 우수 활동 동아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료식에서 강원도지사상 등을 수상했다.한양기 평창군수는 “평화인재양성프로젝트를 통해 평화의 땅 강원도 평창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미래를 선도할 강원도 청소년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최만식기자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 ‘공립미술관 인증기관’ 선정

홍성군은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기념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평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를 병행한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인증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다.

특히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은 홍성군의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고암의 예술적 정신을 되새기고자 매년 기획 및 상설전사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고암미술상 운영과 학술



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며 이응노화백 선양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기념관 관계자는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홍성군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한국화를 세계화하는데 기여하신 이응노화백의 예술세계를 알리는 다양한 선양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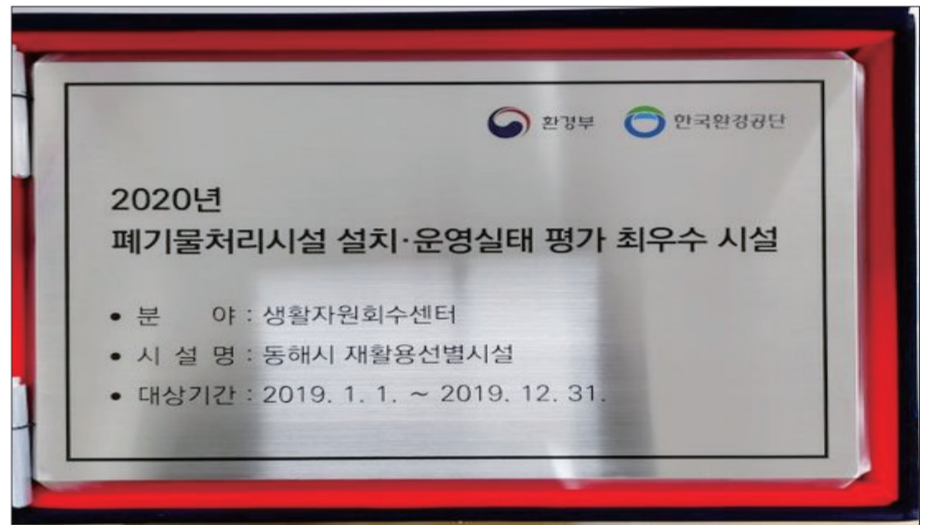
고정화기자

환경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가연성 폐기물 등 자원 순환 구축을 통한 환경 시범도시로 인정

동해시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동해시는 전국의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매립, 생활자원, 음식물류, 가연성, 유기성 폐기물 부문 중에서 생활자원 부문 최우수시설로 선정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사회를 구축을 통한 환경시범도시로 인정받게 됐다.특히 시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을 가동해 1일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80t 중 45% 이상을 가연성 폐기물로 자원화하는 등 매립



쓰레기 감소 및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동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해 매립지의 수

명을 연장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춘천시 통합 도시브랜드 가이드북 발간

춘천시 통합 도시브랜드 가이드북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담다’ 1호 발간



도시 가이드북 2021 3,000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기관, 타시군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한편 춘천시 통합도시브랜드는 올해 ‘2020 레드닷 어워드’, ‘2021 독일디자인 어워드’수상에 이어 ‘2020 잇-

어워드’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또 시정부는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조양동 25-1 일대에 춘천 도시브랜드 벽화를 조성하기도 했다.

김영근기자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구내식당에 투명칸막이 설치

하루 평균 80여명 이용, 총 22개 설치

양양군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포월농공단지 구내식당에 비말차단 투명칸막이를 설치했다.포월농공단지 내 구내식당은 농공단지 근무자 등 하루 평균 8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안전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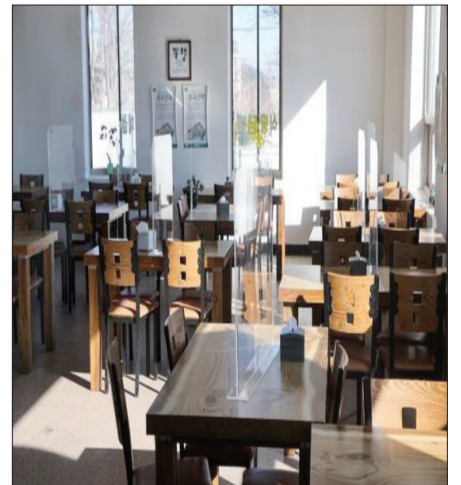
이번에 설치한 투명칸막이는 아크릴 소재의 비말 차단용으로 식탁공간에 총 22개를 설치했다.

구내식당 이용객들은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칸막이 설치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는 반응이다.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과 정결요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식당을 이용하는 근무자들이 식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지도·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을 위한 ‘근로자 개인 및 사업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등원기자



횡성군, 행복 나눔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

횡성군이 2021년 ‘행복 나눔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행복 나눔 지적민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 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감면 제도를 올해 시행한다.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농업인이 ‘3농 혁신지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 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 개월 이내에 경계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적용 한



다.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인 장애인 증명서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토지구획과 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불어, 횡성군은 지적안방통보제 운영을 통해 토지이동신청 이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축적이 완료되면 집에서 손쉽게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민원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횡성군 신승일 토지구획과장은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맞춤형 지적 민원 토달서비스를 통해 지적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원주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원주시는 올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강원도가 선정되면서 원주시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다.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임신·출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 임신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선정되면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하며 지원 한도는 임신부 1인당 연 48만원이



다.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임신부의 필요와 기호에 따라 직접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2019년 원주시 출생아 2,163명의 30%인 650명에 한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추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사업 대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원주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해져 소비자 및 생산자 모두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위기를 기회로 삶의 질 향상 전환점 마련

금산 미래 방향 10대 목표 제시

금산군의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6.3% 증가된 5496억원이다.

앞으로 예산 6000억원을 목표로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2021년 군정 목표를 '위기 속의 기회, 다 함께 잘사는 금산'으로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금산 관광산업 전환 마련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 경제 실현 미래 장기비전 전략 수립 건강하고 행복한 금산 만들기 미래인재 육성 문화·예술·체육 복지 증진 선진농업 기틀 마련 지역 균형 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 소통하는 선진행정 마련 등이다. 2021년 군정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40회를 맞는 금산인삼축제 개막식에서 금산군 관광진흥비전을 선포하고 찾아오는 명품관광의 이슈화와 금산 관광의 위상을 고취해 나간다. 또한 방우리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금강 여울목길 내 발로 가는 사업,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스토리가 있는 돌레길 조성, 금산천 관광 명소화 사업, 금산천·봉황천 내 대규모 꽃단지 조성 등 금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금산만의 자연친화적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청년·공동체·지역방역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 지역 내 소비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해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군의 미래 장기비전 및 전략계획을 수립해 행정과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과 도의 본격 이전 계획 수립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주민 건강에 대해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리적·신체적 불편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고립 위기에 놓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이와 상시 돌봄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복지관·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다문화가정 지원, 어르신 기본 경제활동 및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2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인재육성 장학금 규모를 조기에 달성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으로서의 재능을 키우는 장학사업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식·교복 3무 정책 및 대입 1:1 맞춤 컨설팅도 지원해 교육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군은 작년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의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시설을 갖춘 바 있다. 앞으로 이에 걸맞는 문화예술공연 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화하는 문화·공연 트렌드에 맞춘 온라인 비대면 공연 영상 플랫폼 구축, 찾아가는 시네마 버스 운행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접근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인삼약초산업의 세계화, 명품화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금산인삼약초연구소의 기능을 개편한 금산인삼약초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지원 등을 통해 선진농업의 기반 확대에도 무게를 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해서는 인삼 포장 및 거래 단위를 규격화하는 등 소비자 신뢰

를 확보하는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지속적 인구감소와 경제인구 유출로 구도심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대해 구 읍지병원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 인프라 조성, 일자리, 문화, 건강,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금산을 중도·하옥리 일원의 지역공동체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추진하며 하옥3리 행복복지센터도 조성해 가고 있다. 하천범람과 제방유실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도 추진된다. 이와 상시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노후 상수도 시설 현대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 온택트 시대 주민 참여 정책구상 트렌드를 위해 행정과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형 소통창구도 구축한다. 정보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고충 민원 상담, 진행상황 문자 통지서비스 등도 실시된다. 또한 마을 경로당 내 주민정보 알림시스템 구축하며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군정발전 주민여론 수렴도 계획됐다.

정동희/기자

세종시설공단, 홍익대학교와 창의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와 공동으로 '2020 창의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최근 공단과 혁신 기술개발 협약을 맺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세종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기계·시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 효율성 향상 및 설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단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심사단이 참가팀을 대상으로 발상력·기획력·실현 가능성을 평가했으며 와전류를 통한 알루미늄 캔 선별 장비 개발, 톤백 내용량 확인 시스템 개발,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 기술개발, 압축 선별품 계근 장비 개발 등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최우수 1

팀, 우수 2팀, 장려 2팀이 선정됐다. 계용준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출품된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현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네트워크와 소통·협력해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천안시, 통합사례관리로 불법체류 외국국적 노인 도움

복지제도 사각지대 문제를 통합사례관리로 해결...유기된 노인 송환 지원

천안시가 통합사례관리로 거리에 유기된 97세의 외국국적 노인을 천안 쌍용지구대에서 인수받아 보호 및 송환을 지원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해당 노인은 2년 전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외국국적을 가진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 병원과 노인요양원에서 돈이 없어 쫓겨난 상태였으며 불법체류를 이유로 출입국관리소, 경찰서 병원, 노인요양원, 인근 지자체에서 모두 보호를

거부당했다. 이에 천안시는 고령이며 노환이 있는 대상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상자의 본국 송환 지원을 추진했다.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출입국관리소, 외교부, 경찰서 병원, 요양원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연계해 외교부 대사관 도움을 받아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이끌어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우리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회적 위험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며 "천안시는 제도의 한계를 넘어 복지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탄력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공주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40%에서 70%까지 늘려

공주시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 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및 배우자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금액 적용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14.2% 인상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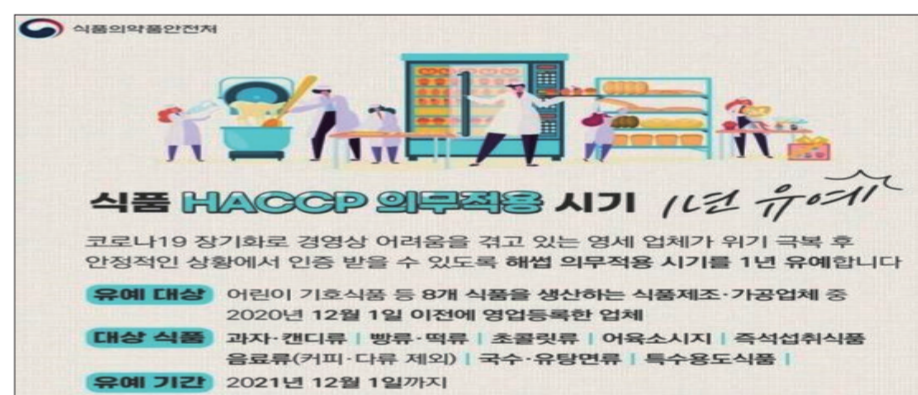
독인정액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아 지

급받는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청양군, 연말까지 HACCP 의무적용품목 인증 지원

청양군이 연말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지원에 나선다. 11일 군에 따르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은 식품의 생산·제조·가공·보존·유통 과정의 모든 위해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의무적용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을 제한된다. 현재 청양지역 상황은 12월말 기준 의무적용품목에 대한 인증 업체가 29개소 중 13개소로 절반에



달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가공품의 안전한 생산 및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및 시설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개소에 대한 HACCP 인증 지원을 마쳤다"며 "올해는 사업비 지원과 인증 독려를 통해 인증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힘찬 시동

순창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통해 2021년 힘찬 출발

순창군이 얼어붙은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가 민선 7기 하반기 주요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순창군의 3대 비전인 인구 4만, 관광객 500만 명, 예산 5,000억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8일 영상회의실에서 황숙주 군수 주재로 이남섭 부군수, 국·실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획예산실 및 행정복지지, 경제산업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시간대를 분리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해법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핵심 사업으로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웰랜드 운영 활성화, 농촌협약,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공공시설물 활성화 등을 위한 마케팅 방안 등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주요사업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은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순창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선7기 하반기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우리군 역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자로 취임한 이남섭 부군수도 이번 보고회를 통해 순창의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사업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순창군의 민선7기 핵심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선수기자

노박래 군수 “차질 없이 판교지구 사업 추진토록 노력할 터”

노박래 서천군수는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융수개발사업은 농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최대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사업을 계획한지 20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 군수는 특히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농민들이 가장 한스럽게 여겼던 천수답 문제, 부사호 염분피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영농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농업 인프라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판교지구 농촌융수개발사업의 착수 배경에 대해 노 군수는 “가뭄이 극심했던 2001년 6월 당시 판교면 주민 72명이 가뭄대책 민원서를 충남도와 농림부에 제출하면서 서천지역의 열악한 영농환경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며 “이후 이듬해인 2002년 봄 다목적농촌융수개발사업

예정지 조사가 이뤄졌지만 20년 가까이 답보만 거듭하다 최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착수를 목전에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군수는 “2017년 6월 사상 유례 없는 가뭄으로 당시 국무총리가 서천 부사호와 보령댐 등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며 “이후 충남도와 농식품부, 기재부를 찾아다니며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렇게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부연했다. 사업 수혜지역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은 서천군의 경우 판교, 한산, 기산, 마산, 시초, 문산, 마서 비인, 종천, 서면 등 10개 면에서 추진되고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서천지역 영농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업인들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업 규모가 서천군과 보령시, 부여군을 포괄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겠다”며 “2076억원

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남도, 기재부,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 기관과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김준성 영광군수, 새해 최고령 장수 어르신 방문 격려

온정의 손길 전하며 무병장수 기원

김준성 영광군수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최은영 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최고령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영광군의 최고령 장수 어르신은 군서면에 거주하는 정관임 할머니로 올해 나이 106세에 이른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 오복남 씨는 74세의 나이에도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경로효친 상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행남효행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관임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방문해 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매서운 한파 속 어르신의 안부를 살필히 챙기면서 이불세트와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정관임 할머니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대한민국 최고 문화도시 만들 것”

호남 유일 문화도시 선정 관련 8일
기자간담회서 의지 피력

박성일 완주군수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완주군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5년간 정부 지원 예산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이 기간 동안 주민이 완주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구성해 가도록 제 없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군수는 이날 완주군 출입기자들과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화도시는 5년 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완주군을 전국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일을 주민과 함께 계속할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주민들이 공간과 물품, 인력 등 문화적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며 “이를 더 고도화해 문화자원에 대한 제약을 모두 해소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완주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적 영역에만 국한해서 운영되는 사업구조가 아니다”며 “완주의 자랑스러운 로컬푸드나 사회적 경제 영역, 도시재생사업 등과 협력해서 문화도시 사업이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와 관련, “로컬푸드나 완주 소설그즈 사업과는 경제적 영역에 문화브랜드 효과를 추가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과는 근린 문화공간이나 경관, 환경 등을 재정비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향후 추진 시스템과 관련해 “지나해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체계는 잘 정비됐다”며 “문화도시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완주지역 문화 현상마다 주민기획단이 구성되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까지 주관하는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앞서 지난 2020년 4월에 문화도시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기구인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을 마친 바 있다. 아울러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의 ‘완주형 문화 거버넌스 체계’도 구성해 운영 중인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문화 안정만 구축 관련 조례를 주민들이 제안할 정도로 잘 작동하고 있다. 박 군수는 “이런 완주형 문화도시 추진 체계는 이미 다른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며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윤걸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이날 “문화를 향유하고 단순히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을 바꾸기 위한 완주의 실험이 놀라울 만

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 문체부의 법정 문화도시로 완주군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전국 군 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축적된 지역사회 경험을 지닌 주민들의 역량이 만들어낸 성과”고 말했다. 완주군은 이와 함께 그동안 문화도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와 추진위원회 출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지역문화거점 공간을 만드는 등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주요 행·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한편 문체부는 전날인 7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로 완주군과 경남 김해,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광수기자



유근기 곡성군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했다.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문구를 들고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를 이어갈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8일 곡성군 공식 SNS에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챌린지 구호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군에서도 과속 단속 카메라, 노란 신호등, 안전속도 5030 등을 통해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근기 군수는 곡성경찰서장, 허성균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호 구례군수를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이남출기자



사천문화재단, '고려 현종 대왕축제' 포스터 공모전 개최

총상금 300만원, 1월 21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사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고려 현종 대왕축제'를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포스터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천문화재단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고려 현종 대왕축제'를 대표할 얼굴을 선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축제의 주제와 고려이며 사천의 역사와 축제의 상징적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스터를 공모한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모작 중 '고려 현종 대왕축제'를 대표할 포스터를 선정하며 선정작은 추후 축제의 다양한 홍보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과 업체에서는 사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e-메일로만 접수를 받는다. 개인과 업체 상관없이 1인당 2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응모작은 대표성, 독창성,

대중성, 완성도, 활용도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 작품 수준이 미달되거나 공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상 이후라도 시상금을 환수 조치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심사를 계획하며 오는 2월 중 최종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려 현종 대왕축제'는 지난 14년부터 1995년 사천시 출범과 함께 24회에 걸쳐 개최했던 '와룡문화제'에서 변화된 축제이며 올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사천에 어쇼와 함께 열린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새롭게 변화된 '고려 현종 대왕축제'의 대표 포스터를 공모하니 처음 개최되는 축제 포스터 선정의 영광과 총 300만원의 상금을 거머쥔 주인공이 되기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죽오 이근오 일기'역주본 발간

일기 번역 및 해제, 원문, 논고 사진 등 수록

울산박물관은 '학술총서 제11집'으로 조선 후기 울산의 유학자인 죽오 이근오 일기 '역주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죽오 이근오 일기는 28년 동안 쓴 이근오 일기의 번역 및 해제, 원문, 논고 사진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일기에는 이근오의 일상을 중심으로 가정생활, 후학을 위한 권학과 지도, 대국전에 백련서사를 건립한 최남복을 비롯한 지인들과의 만남, 이별, 여행, 백일장 참석 등의 크고 작은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다.

한문 번역과 해제, 논고 작성은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궁희 교수와 전제동 교수가 맡았다. 울산지역에서의 첫 문과 급제라는 이근오의 명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9세기 영남지방에서 활동한 선비의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책은 울산 관내 도서관·박물관과 전국의 주요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죽오 이근오는 학성이씨 충숙공 이예의 후손이며 조선시대 울산 최초의 문과급제자로 기록되는 인물이다. 1760년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에서 태어나, 1770년 남경희의 부친 남용만의 문하에서 공부했고 1789년 소과에 합격하고 1790년 가을 증광문과에 급제했다. 이후 승문원 부정자, 성균관전적을 역임하고 1804년 병조정랑에 임명되었으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1819년 사헌부지평에 올랐다. 이근오 일기는 1804년, 1805년, 1808년, 1809년, 1810년, 1811년, 1812년, 1831년, 1832년 일기가 남아 있다. 이근오 일

기 원본은 현재 울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울산 지역사 연구 심화와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술연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울산 지역사 연구 기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박물관은 그 동안 기증, 구입 등의 방식으로 울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왔으며 울산 관련 중요 자료를 번역해 학술총서로 제작했다. '부북일기' 역주본, '울산부선생인' 역주본, '학성이씨 현령공파 기증 고문서', '울산 보부상단 문헌자료' 역주본, '연양현감 윤병관의 만인산' 등을 발간해 울산 지역사 연구자료로 제공했다. 한편 울산박물관은 2021년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현'을 목표로 연중 다양한 기획전시와 교육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짧은 시간에 울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울산 역사문화 알기 30분', '울산 역사문화 알기 1시간' 등의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상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세종시문화재단, 2021년 예술지원사업 8억3천만원 공모

사업설명회는 1월 14일 온라인생중계로 진행

세종시문화재단은 2021년 예술지원사업 공모를 7일부터 진행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등 2개 분야로 총 지원금은 8억 3천만원이다. 재단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예술환경 속에서 온라인·비대면 등 활동방식을 다양화하고 일부 신청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했다. 특히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신청예술인 본인이나 예술단체 대표자의 창작활동비 편성이 가능해졌고 유료공연의 경우 수익금을 창작활동에 재투자할 수도 있어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3개 단체에 1억 1천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역기반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보다 2천 5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또한 상주단체의 자율성과 작품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수 프로그램을 기존 7개에서 초연창작과 기획공연 등 3개로 줄이

고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청년예술가육성 등 8개 분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제예술교류와 레지던시 분야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다년 지원사업인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창작 분야는 작년에 선정된 3개 단체에 2천만 원씩 지원한다. 재단은 위축된 지역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정단체 수를 전년보다 10% 확대하는 한편 예술인 간 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해 작년에 추진했던 '지역예술인 모니터단'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는 더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사업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문의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질 의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재은기자

'임시정부 수립 주역' 윤현진 선생 유품 '귀향'

증손자 윤장원 씨,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품 21점 기증

양산시립박물관은 지난 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차장을 역임한 우산 윤현진 선생의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은 유품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유품은 선생의 증손자인 윤장원씨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보관하던 것으로 지난 2016년 부친인 고 윤석우씨가 선생의 유품을 모아 기증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기증받은 유품은 총 14건 21점으로 주로 선생의 생전에 생활과 연관된 유물이 주를 이룬다. 주요 유품으로는 선생의 부인 엄정자 여사가 시집을 때 짜서 가져왔다는 양산반달이, 결혼예물의 물품을 적은 납예배장, 자수 배계장시품, 당상관 이상의 양반이 도포를 입을 때 허리에 매는 자색 도포끈 등이 있다. 특히 조선말 시서화의 삼절이며 수묵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석재 서병오가 유현진 선생에게 직접 그려준 '묵죽도'가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작품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그리고 오른쪽에 "우산인형정감"이라 써서 직접 감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 줬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임정에 참여하기 전인 1919년 4월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당시 윤현진이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선생의 서거직후 1921년 가을에 쓴 독립운동가 김양수와 이영민의 미공개 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신유철 박물관장은 "석재는 극락암 삼소굴, 영월루 등의 편액을 쓰는 등 양산과 인연이 많은 인물인데, 우산 선생에게 묵죽을 그려줬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번의 기증으로 가을에 기획중인 선생의 추모 전시가 크게 빛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증된 유품은 기증절차에 따라 박물관에 귀속함과 동시에 오는 9월 윤현진 선생 서거 100주년을 추모해 기획중인 특별전을 통해 기증품 모두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박물관측은 올해 선생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모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현재 시립박물관에 소장중인 유현진 관련 유품은 총 67건 114점으로 향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양산항일독립기념관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영기기자

의왕시, '의왕 학생동아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콘서트' 제작

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의왕 학생동아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콘서트' 영상물을 제작했다. 특별한 콘서트는 지난 1년 동안의 학생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린이절을 회상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메들리,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과 우정을 뮤지컬 곡들에 담아낸 1부와 부모님의 사랑과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된 영상은 관내 학교와 청소년수

련시설에 우선 배포하고 의왕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전국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삼돈 의왕시장은 "시에서는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한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동안의 지친 마음을 위로 받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욱기자



한국토픽교육센터 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사 비대면 원격교육 개강

근로자 국비지원 비대면 온라인교육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는 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사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1월 9일에 근로자 국비지원 교육으로 개강한다. 본 과정은 NCS 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이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인건비 인건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기기를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가 있다. 전기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회전기, 정지기, 제어장치 또는 빌딩, 공장, 주택 및 전력시설물의 전선, 케이블, 전기기계 및 기구를 설치, 보수, 검사, 시험 및 관리하는 일을 한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발전소, 변전소, 전기공사작물시설업체, 건설업체, 한국전력공사 및 일반사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생산업체, 부품제조업체

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검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공사비의 적산, 공사공정계획의 수립, 시공과정에서 전기의 적정여부 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수행을 한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 발전소, 변전소, 설계회사,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며 일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하거나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필기시험과목은 1.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며 필기시험과목은 전기설비 검적 및 시공이다. 관련학과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전문대학 및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과, 전기설비과, 전기통신과 등이 관련학과이다. 기타 자세한 인정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넷넷)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는 서울시장

공회소동작구상공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임원사이고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HRD기업협회, 한국이러닝협회 회원사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를 필한 교육전문기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넷넷) 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비대

면 온라인교육을 통해 국비지원교육을 한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등 '21년 시그니처 정책 추진

'21년 예산 1625억원,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21년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20년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 연구개발 예산으로 '20년보다 30%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 협력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 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 대상에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

험 인프라 구축을 '21년 신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중·중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20년 49억원에서 '21년 70억원으로 41% 증액했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예로 개발·해소하는 '똥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은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21년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해가 될 것"이며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반신반의했던 '배달특급' 이제는 우리들의 '희망'이다" 가맹점주들 한목소리

"낮은 수수료에 경제적 이익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심적 안정감도 되찾아"

출시 한 달이 지난 '배달특급'이 매출 증대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파주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김상섭 씨는 처음 '배달특급'에 가입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는 늘 부담이었지만, 그렇다고 낮은 수수료의 공공배달앱이 잘 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간 영업한 이후 김 씨의 생각은 바뀌었다.

"배달특급"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800만원이었지만, 수수료는 8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형편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우리 가게가 잘되는 것을 보고 근처 중국집이 대부분 배달특급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배달특급'이 수익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낮은 수수료는 물론 '배달특급'이 근심걱정도 덜어준 셈



이다. 화성시의 보습 전문점의 황진성 대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과 포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지만, 높은 수수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섰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가입했고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서만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에 불과했다. 황 씨는 "배달특급에 참여한 것이 늘 막막했던 지난해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배달특급 매출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수익

이 계속 늘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김석석 부회장은 "'배달특급'이 한 달 만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주변 상인들이 한시름 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한다"며 "소비자 혜택을 통한 지역화폐 이용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특급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해 서비스 지역이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더욱 많은 소상공인 동료들이 우리처럼 도움을 받고 함께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해 12월 1일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12월 한 달간 총 가입 회원 11만명, 총 거래액 30억원을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다. 같은 기간 지역화폐 사용률은 약 67%, 제주문물도 50%를 넘기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에 그치지 않고 실수익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이 다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 줄 수 있도록 가맹점 자체 할인 혜택 제공 등의 기능도 준비 중에 있다.

최만식/기자

글로벌 기업의 국내유치 위해 경기도 독자적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경기도 내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발간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기업의 탈세계화와 리쇼어링, 국내 투자환경과 제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해외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정책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동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자체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유치를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내 일반 산업단지 및 비교하면 외투단지의 생산성이 크게 나타난다. 외투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은 810억원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 64억원보다 12.6배 높게 나타났다. 토지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면적당 매출액'은 42억원으로 산업단지에 비해 1.4배 높았다. 또한 노동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고용자 1인당 매출액'은 8억원으로 산업단지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외투기업의 지속적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투자유치 관점에서 경기도 내 산업혁신과 양질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투자활동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혁신·상생·지속'이라는 4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기존 투자전략에서 탈피한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을 제시했으며 잠재 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중국·동남아 국가의 급부상에 따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2019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경기도에서도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

단해, 본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용보조금 지원은 투자상당 시 협상력을 강화해 투자 성사율을 높이는 한편 효율 임금 제시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민간일자리 창출, 입지여건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년간 약 15개의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각종 관리비용과 이차비용을 발생시키는 미임대부지를 해소해 경기도 재정여건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망 글로벌기업 유치가 경기도 내 경제성장 견인 및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용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만식/기자



서산시, 2021년 사회적경제의 성장 주력 자생력·경쟁력 강화

2021년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5개 전략, 28개 세부과제 수립

서산시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라는 비전과 '110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목표로 2021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계획에 따라 5개 전략 28개 세부 추진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 전략은 사회적자력 확산 및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재정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사후관리 강화다. 세부 추진사업은 사회적경제 현장지원단 운영,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사회적경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 해미읍성 토요 주말장터 운영 등으로 총

28개를 수립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17개의 신규조직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현장지원단 운영 및 각종 공모에 대비코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일정도 신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아카데미는 재정 및 시설 장비 지원 등 실무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대비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과 해미읍성 토요 직거래장터 등을 지원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예정이다. 신현우 서산시 시민공동체과장은 "올해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1,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개척, 마케팅 등 전략적 경영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57번 국지도 왜 경기도는 동림 IC만 중단했을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용인시 포곡읍을 잇는 57번 국지도 공사 구간 중 동림IC만 제외한 채

준공을 마치자 해당 지역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불과 6.2km밖에 되지 않는 해당구간이 착공 10년 만에 완공되면서 물가 인상과 계약당시의 미비한 협약 등이 사건발발의 동기가 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불거지기 시작했다.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이 벌어져자 공사비 분담을 놓고 인근 양우 내안팎 아파트주택조합과 경기도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당초 계약 당사자와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을 승인 받은 지역주택조합과 승인권자인 광주시는 물론 거액의 공사비가 증발되었다는 각종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2020년 해를 넘기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조합 측은 경기도가 아파트 인허가를 불모로 감질 행정을 해 100억 원대에 이르는 도로 건설 비용을 떠넘겼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기도는 조합측이 공사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인상폭이나 사전공사협약에 대한 여지가 감사원까지 나서서 선으로 확대됐다. 사건이 발단은 경기도 건설 본부가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 인계받은 57번 국지도, 국비지원도로는 오포~포곡·포항·포장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 행정안전부가 국지도는 사업구간 부적절이라며 당초 국토부의 계획에 없던 문형교 등 200미터 구간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비 부담에 대한 주체가 불확실해지자 조합은 국토부 감사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에게 이의를 제기하라 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조합쪽으로 전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측은 아파트 인허가 당시 진입로 공사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사 승인권자인 광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45억 7천만원의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국지도 동림 IC 연결공사와 문형교 공사비용을 조합 쪽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됐다.

조합에 유리한 협상결과다. 이 과정에서 공사견적을 뺏다보니 45억 3천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하여 조합측은 어차피 지급해야

할 교통유발분담금에 보다 적게 나온 차액 4천만원만 더 부담하면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협약에 동의했다.

하지만 공사가 늦어지면 서 조합이 부담할 공사비 총액은 아파트 방음벽을 포함하여 64억 8천만원으로 늘어났고 2018년 4월 이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 등이 증액되어 71억 5천만원으로 불어났으며 물가 인상분과 설계변경 등 변수에 의해 78억 원으로 증액되자 이미 54억 원으로 공사비를 다 냈다는 조합 측 입장에서는 미납된 공사비로 시공을 못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 2018년 8월 현 조합장 H씨는 경기도와 시공사인 SK 건설과 불어난 공사비를 인정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협약서 작성 이후에 공사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 경기도가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파트 완공 이후 예상했던 동림IC가 미 개통되자 주택사업 승인 시 광주시와 협의했던 전 조합장이 조합원 동의 없이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응했으므로 무효라며 미 개통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공사비에 대한 책임전가가 미 개통에 대한 항의로 이어지면서 내부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초 광주시와 공사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전 조합장은 조합의 고문 P씨가 진입도로 등 공사비에 대해 1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광주 시에서 예산으로 확보 해줄 경우 조합이 어차피 부담해야 할 공사비 100억원을 P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아이그린(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단서를 달면서 2차 토지매매계약서 2014년 4월 작성하는 과정에 불분명한 자금유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취재결과 조합과 유아이그린은 2013년 11월 토지대금을 550억원으로 하는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초 계약 이후 토지인상분 50억원과 예상했던 에스 크로 조항(광주시 예산확보) 100억원을 포함 550억원 있던 토지대금이 2014년 4월 2차 토지 매매변경계약을 체결과정에서 700억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도로공사비용에 대한 책임소재는 예견된 바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광주시 에 대한 에스 크로 조항이 불가능해

지면서 조합고문 P씨가 광주 시로부터 공사비를 확보 받지 못했으므로 당초 작성했던 700억원의 합의서에 있던 2014년 4월 에 체결한 2차 매매계약 상 100억원 에스 크로 조항은 자연 소멸되어야 함에도 에스 크로 조항 삭제의 명목으로 전 조합장이 30억 원을 조합고문 P씨의 친척이 운영하는 T회사로 20억원, 익명계좌로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합장은 P씨에게 지급한 30억 원의 지급사유에 대해 1차 계약서 작성 이후 합의서 작성까지 발생한 금융이자 108억 원을 탕감해 준다는 전제임이 포함되어 사전담합의 의혹을 사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4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조합이 토지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못했으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108억 원의 지연이자를 유아이그린(주)에 지급해야 하나 조합고문 P씨가 요구하는 사항을 조합이 충족시켜 주면 30억원으로 삭감해준다는 명분을 만들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 대해 조합원들은 P씨의 30억원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세 번째로 계약한 최종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계약한 최종 매매계약서는 2015년 3월 체결되었으며 매매대금은 600억원이다. 이 계약서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1개월 후인 2015년 4월에 작성한 계약서에 30억원이 명시된 것이므로 명분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P씨의 부당한 공사비 편취로 인해 동림 IC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 외부적 약재로 인해 동림IC 공사중단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조합원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통행에 극심한 불편 함을 겪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의 감사결과로 출발한 문제는 경기도와 시공을 맡은 SK건설의 10년이라는 공사기간 지연이 외부적 요인이었다면 내부적으로 조합장과 조합고문 P씨간에 작성한 "2015년 4월 30억원 지급 합의서"에 제시된 조합비 횡령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750세대의 입주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한편 공사비를 두고 경기도와 조합간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측이 주장하는 공사비 납부는 2017년 3월 13일 광주 문형지구 진입도로(교량포함) 및 방음벽공사 협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경기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공을, 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으며 동림IC중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부담과 관련된 계약은 조합과 SK건설 간 4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이 계약서에 날인한 만큼 조합원의 동의여부는 조합내부 사항으로 도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감사원이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굴지의 대기업인 SK 건설, 인정할 수 없는 합의로 조합측에 공사비를 떠넘겼으므로 공사비를 줄 수 없다는 조합, 내, 외부적으로 총체적인 난항을 겪고 있는 동림IC 개통은 언제 완공될지 미지수로 남게 됐다. 한편 조합의 금전적 문제점은 아파트를 시공한 양우건설과도 유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사준공금이 나지 않 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양우 건설이 공사대금조로 받은 아파트도 소송에 휘말려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 해지면서 끝없는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포 양우내안에 아파트 조합 사건은 수십건의 송사가 진행중인바 향후 진행되는 재판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이 추가될지 감춰진 의혹들이 밝혀지면서 정상을 되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공을 맡은 양우 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가로 공사에 착수해 정성껏 시공했으나 공사비의 미납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다."며 "내집 마련이 꿈을 안고 있는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끝까지 완공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현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시공사에게 끊임없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오다가 하면 공사비를 삭감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 물로 받은 148세대 조차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와 약 1,400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파주시, 시민안전 지키는 지능형교통체계 현장점검

최종환 파주시장은 8일 오전 119안전센터 긴급차량 출동지원시스템과 운정별연교회 앞 교차로 광안 경매시장 앞 교차로에 구축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점검했다. 오전 119안전센터 앞 교차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해 긴급 차량 출동 시 일반 차량과 충돌 위험이 커,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없었던 곳으로 화재 초기진화 및 인명구조 등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점검에서는 안전센터에 설치된 긴급차량 출동지원 시스템을 동작시켜 교차로 교통신호 전체가 적색으로 변경됐을 때 소방차, 구급차가 신호대기 없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을 확인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스템은 횡단보도 내 보행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구축한 것으로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

도에 접근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접근중'이라고 안내하며 보행자에게는 차량접근 여부를 경고 음성과 LED 전광판 '차량 접근중' 문구를 통해 알려준다. 특히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밤에는 로고젝트를 통해 보행자에게 접근하는 차량에 유의하도록 안내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의하면 파주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327건으로 이중 보행자가 횡단 중 발생 사고는 135건이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첨단 IT 기술이 교통안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으며 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울진군, 불법어업 지도에서 단속으로 전환

울진대계 수산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울진군은 최근 대계지역의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계암컷, 체장미달대계 등의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예방, 지도에서 단속으로 전환한다.

특히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계의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계, 체장 미달 대계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군 보유 어업지도선인 경북제205호를 해상에 집중 배치

해 단속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육상 단속반을 우범 항·포구와 주

요하천에 주·야간 구별 없이 수시로 투입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계는 암컷과 9센티미터 이하 체장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계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강화로 전환해 대계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광양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감염 전수 검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면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됐고 5명 이상부터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택시 회사에서 직원 및 운수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여객을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운수종사자 및 승객 감염을 통한 2차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양시는 이와 같은 2차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시내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

로 했다. 검사대상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36명,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28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69명 등 총 633명이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월 12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월 13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1월 14일 광양읍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양근 교통과장은 "대중교통의 철저한 방역소독과 운수종사자의 선제 검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제작진 “유재석 씨와 함께 2020년

방송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분들,

MBC ‘놀면 뭐하니?’의 2021년 첫 계획이 공개된다. 2020년 연예 대상 수상에 이어 2021년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예능인 유재석의 오랜 바람이 담긴 프로젝트로 올해 예능계에서 활약할 ‘신구 예능인’들을 찾아 나선다. 오는 9일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유재석과 제작진이 2020년 한 해를 정산하고 2021년에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된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유재석 씨와 함께 2020년 방송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분들과 2021년을 빛낼 분들이 어우러지는 ‘신구 예능인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과 만나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년 마지막 날, 제작진은 2020 MBC 방송연예대상을 수상한 유재석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마련했다. 공개된 사

진 속에는 유재석을 향한 남다른 애정이 담긴 현수막들이 눈길을 모은다. 특히 그를 위한 ‘왕좌’까지 준비했는데, 불편한 듯 의자 끄트머리에 앉은 유재석의 모습이 폭소를 자아낸다. 유재석은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가장 받고 싶었던 상은 시청자들이 직접 뽑아준 ‘올해의 프로그램상’이라고 밝히며 ‘놀면 뭐하니?’를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다시 한번 ‘놀면 뭐하니?’에 대해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며 올해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기도. 그런가 하면 그는 MBC 방송연예대상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이효리와 비에게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는 모습도 공개된다. 유재석에게 생애 처음으로 베스트커플 상을 안겨준 이효리는 평소와 다른 귀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유재석을 짝짝 놀라



게 했다고. 그녀는 화제의 ‘이블드레스’의 비하인드도 전해줄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짝소리’의 막내이자 ‘섭서비’ 비룡으로 활약한 비는 유재석의 연례 반가움과 함께 여전히 섭섭함을 드러냈다고 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예능인 유재석의 오랜 바람

과 빅픽처가 담긴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신구 예능인’들을 찾아 나설 그의 활약을 관심있게 지켜본다. 방송계를 총망라해 2021년 예능계에서 활약할 인물들을 찾아 나선 유재석의 모습은 오는 9일 방송되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설록 여주, 고미래를 찾아라’

‘바람피면 죽는다’ 조여정-고준-연우, ‘공포의 숨바꼭질’

‘바람피면 죽는다’가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무한 자극하고 있다. 조여정-고준-연우의 오묘한 삼각관계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9회 엔딩을 장식한 ‘공포의 숨바꼭질’ 현장 비하인드 스틸이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측은 11일 시청자들의 심장을 쫓기하게 만든 조여정-고준-연우의 ‘공포의 숨바꼭질’ 현장 비하인드 스틸을 공개했다.

지난 9-10회에서는 남편 한우성의 바람을 의심하는 아내 강여주의 치밀하고 허를 찌르는 활약이 펼쳐지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주는 여대생 고미래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녀와 우성 사이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다. 우성은 미래와 계속되는 우연한 만남에 마음을 풀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미래와 마주하게 됐고 이때 여주가 기막힌 타이밍에 등장하며 이들의 ‘공포의 숨바꼭질’ 장면이 탄생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공포의 숨바꼭질’ 촬영 현장이 담겨 눈길을 모은다. 조여정-고준-연우가 한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은 세 사람의 화기에 애환 분위기를 전해준다. 특히 조여정과 연우가 머리를 맞대고 귀여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과 그와 상반되게 눈을 감고 나 홀로 고독에 빠진 고준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캐비닛에 숨은 연우를 발견하고 서늘한 첫인사를 건네는 조여정의 모습과 좁은 캐비닛 안에서도 장난스럽게 ‘V’를 그리는 연우의 귀여운 반전 모습도 포착돼 시선을 모은다.

다급하게 ‘제수 씨’를 울부짖었던 정상훈과 누가 봐도 난감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고준의 디테일한 표정 연기까지, 긴장감 넘치는 공포와 스릴러, 웃음까지 책임지고 있는 배우들의 열연이 ‘바람피면 죽는다’를 더욱 더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바람피면 죽는다’ 제작진은 “조여정-고준-연우-정상훈 등 배우들이 현장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했다”며 “스릴러와 코믹을 오가는 전개 속에 배우들의 감칠맛 나는 케미가 돋보였던 장면이었다. 앞으로도 배우들의 차진 호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공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바람피면 죽는다’는 오로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범죄 소설가 아내와 ‘바람피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후 전문 변호사 남편의 코믹 미스터리 스릴러로 죄책감을 안고 나쁜 짓을 하는 어른들에 대한 과격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 ‘황금빛 내 인생’ 등 연출력을 뽐낸 김형석 PD와 지상과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성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최만식/기자



‘슈주 리턴즈4’ 신 스틸러 예성부터 동네 바보가 된 은혁까지 포복절도 사연 대 공개

팬들을 위한 슈퍼주니어의 깜짝 선공 라이브 선물 마음 담긴 라이브 송은 과연?

‘슈주 리턴즈4’에서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리턴즈’를 통해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팬들의 사연을 읽으며 함께 추억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슈퍼주니어의 데뷔 15주년을 맞이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슈주 리턴즈4’는 그동안 팬들이 보고 싶어 했던 아이টে이로 꾸며지고 있다.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매달 새로운 아이টে이로 풍성한 재미와 멤버들의 매력을 듬뿍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 추억의 슈퍼포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리턴즈’로 웃음을 준 ‘슈주 리턴즈4’가 이번 주에는 팬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 세계 수많은 슈퍼주니어 팬 ‘E.L.F.’가 보내온 추억의 사연 공개와 함께 팬들을 위한 슈퍼주니어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까지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E.L.F.가 보내준 첫 번째 사연은 지난 2008년 ‘희망 TV 24’에 출연해 기부금 모금을 위해 서울 한 바퀴를 24시간 동안 걸 새 없이 뛰었던 슈퍼주니어를 추억하는 내용. 멤버들은 당시 힘들었던 순간을 회상하며 예성의 목발 스토리부터 제자리걸음 예피소드까지 아무도 몰랐던 뒷이야기를 풀어냈다. 더불어 멤버들의 마라톤 비포&애프터 사진까지 공개되며 현장을 조도화했다는 후문이

정동희/기자



“어려울 때 일수록 도전하시고 파이팅하시고 행복하세요”

‘동네투톱’의 시도가 남긴 것3 팬현숙-이특의 재발견

‘20세기에 문을 열어 오랜 시간 그 지역의 양대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노포 맛집 두 곳을 방문하며 맛과 노포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낸 ‘동네 투톱’이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항상 새로운 맛집과 새로운 음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는 다른 음식 프로그램과는 달랐다. 팬현숙, 이특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노포의 스토리와 맛의 가치,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내며 호평을 받은 ‘동네투톱’이 남긴 세 가지를 정리해봤다.

지난해 11월 21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SK브로드밴드 지역채널 1번에서 방송된 ‘맛있는 전쟁-동네투톱’은 총 7곳 지역 14개의 노포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감동, 희망의 메시지까지 전했다.

팬현숙과 이특은 서울 중구의 북창동 거리에서 이웃사촌이지만, 경쟁자이기도 한 두 노포가 각각 48년과 50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상상할 수 있었던 이른바 ‘동그랑땡’ 집을 1회로 짜장면과 쫄면의 발상지인 인천 신포동에서 소의 모든 부위를 탐하는 원기회복 보양식 투톱인 ‘도가니 무침과 스킨’을 맛보며 2회에



서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3회는 부산 최대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대게 한상차림’을 맛보며 폭풍 먹방을 보여줬고 4회는 팬현숙의 어린 시절 추억을 꺼내게 만든 경기도 이전의 한상차림을 소개하기도 했다. 겨울철 몸보신 특집으로 꾸며진 5회는 서울 종로구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온 노포 중에서도 ‘닭한마리’로 모든 것을 평정한 노포가 등장했다. 6회는 미식의 도시 전주에 입성했고 비빔밥, 풍나물국밥 등 다양한 한식 메뉴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평범한 한식이 아닌 전주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물짜장’이 소개돼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7회는 숨겨진 감자탕의

매카 안양 석수시장의 두 노포가 공개됐고 그 특이한 비주얼과 맛에 MC들이 흠뻑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MC를 맡은 팬현숙과 이특은 첫 만남부터 누님-동생으로 호칭을 정리하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케미가 착착 떨어진 두 사람의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다양하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과 특별한 맛의 표현으로 시청자들이 마치 그 음식을 맛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특은 빼 발골 기술, 면치기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체면은 잠시 내려놓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 시청자들을 웃게 했으며 하이텐션으로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에너

지를 뽐내며 팬현숙은 새로운 MC의 전형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어려울 때 일수록 도전하시고 파이팅하시고 행복하세요”며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런가 하면 동네투톱을 빛낸 노포들이 가진 역사와 추억, 그 안에 담긴 스토리도 시청자들을 찡하게 했다. 마치 박물관 같은 노포부터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장사가 잘돼 자부심으로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사장님의 사연까지. 노포 자체는 그 안을 채우고 지탱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팬현숙으로 해금 눈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 시청자들 역시 단순한 먹방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포가 가지고 있는 맛에 깃든 사람 사는 이야기에 주목하며 호평을 보냈다.

마지막 방송까지 ‘동네투톱’은 감동을 줬다. 14곳의 노포 사장님들의 인터뷰를 하나하나 담아냈는데, 손님들에게 집밥 같은 밥을 먹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장님부터 손님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만나자며 현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 코끝 찡한 엔딩을 선사했다. 팬현숙과 이특이 시즌2를 기원한 가운데, 시청자들까지 이를 바라는 상황에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동네투톱’이 다시 돌아올지 기대를 모은다.

최재은/기자

‘여신강림’ 황인엽, 깊어지는 짝사랑 속 돋보이는 ‘심쿰 매력’



황인엽이 ‘여신강림’으로 ‘한서준 앓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연출 김상협, 극본 이시은)’에서 결보기엔 날카롭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반전 매력의 ‘한서준’ 역을 맡은 황인엽이 화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의 설렘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주 방송된 7, 8화에서는 한서준이 임주경(문가영 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고 이수호(차은우 분)와 격렬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고교야구 에이스 투수인 류형진(정건주 분)이 등장해 주경에게 거침없이 직진하는 것을 보고 부정중이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 급기야 수호에게 “솔직히 야구 말고 임주경 좋아져서 왔다. 내가 그럼 안될 이유라도 있어?”라고 선언하며 삼각 로맨스에 제대로 불을 붙였다.

황인엽은 티격태격 친구 같은 매력으로 서서히 주경에게 다가가는 서준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며 안방극장 여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쉼 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특출 표현하는 데사에 설렘을 더하는 중저음 목소리는 로코 유망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부분. 상황에 따

라 달라지는 대사 톤은 섬세한 캐릭터 연구가 돋보였던 대목이다. 이렇듯 아픈 주경을 위해 해열제를 받아오는 등 살뜰히 간호하는 모습뿐 아니라, 자는 주경에게 조심스럽게 꽃꽂이를 선물하는 황인엽 표 짝사랑 연기는 설렘 지수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수학여행 장기 자랑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뽐낸 뛰어난 노래 실력은 캐릭터 매력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또한 수호 때문에 우는 주경의 마음을 알아서도 시선을 맞춰 앉아 위로해 주는 따뜻한 반전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심쿰’을 유발했다.

그러나 극 말미 주경과 수호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점차 짝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고 있는 서준의 심리를 황인엽이 어떻게 그려갈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한편, 황인엽이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여신강림’은 매주 수목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10년 만에 연봉조정 선수 나온다" 코로나19여파 속 경이로운 소문

멀리뛰기 국가대표 이희진 청양군청 육상팀 입단

LG 트윈스 류지현 감독은 현역 시절 독특한 기록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연봉조정신청에서 프로야구 39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승리한 선수다. 2002년 시즌을 앞두고 류지현은 전년도 연봉 2억원에서 2000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연봉조정 신청을 했다. 소속팀 LG 구단 제시액은 1000만원이 삭감된 1억9000만원. KBO 조정위원회는 류지현의 손을 들어줘 2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프로야구 출범 20년 만에 첫 선수 승리 사례였다. 이후에도 선수 승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연봉 고과평가 방식이 정교해지면서 분쟁이 줄었다. 마지막 조정위원회가 열린 건 2011년 롯데 이대호였다. 이듬해인 2012년 LG 이대형의 조정신청이 취소된 이후 2013년부터 조정신청은 자취를 감췄다. 올해는 과연 어떨까. 예년처럼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 않다. 코로나19 여파 속 예산을 줄이려는 각 구단들과 선수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복수의 구단에서 연봉조정 신청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연봉조정신청 마감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과연 소문대로 실제 조정신청 선수가 나올까. 두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각 구단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연봉 협상 테이블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팀 올려주고, 더 깎으



려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다. 창단 첫 우승한 NC 다이노스나 창단 첫 가을 야구 진출 팀 KT 위즈 등 팔목할 만한 성적을 올린 팀은 진통이 없을 수 없다. 선수 입장에서 불만이 있다. '외부 FA'에는 후하고, 기존 선수 연봉에는 박박하는 불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올 겨울 FA 시장은 이례적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코로나19 여파로 냉랭할 거란 예상을 깨고, '양면지 효과'

를 확인한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배팅에 나섰다. 실제 영입하지 않은 구단들도 배팅에 참여했거나, 적어도 고민은 했다. 사실 히어로즈를 제외하고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KBO 구단들의 현실상 기존 선수 연봉과 외부 FA 영입 비용은 별개의 예산이다. 거액의 외부 FA를 잡을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추가 예산을 더 지원받는 구조

다. FA 영입을 안 했다고 그 돈을 연봉으로 전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당장 주머니가 훌쩍해질 기존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구단 사정을 곱게 이해할 리 없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며 감정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착된 대리인 제도도 연봉조정 신청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선수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단과 결끄러운 대면 접촉을 해야 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리인 역시 구단 눈치를 전혀 안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선수 본인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 선수와 구단은 각각 연봉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오후 6시까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수나 구단 중 하나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제출한 쪽의 희망 연봉으로 자동 확정된다. 근거 자료도 선수 본인보다 대리인이 훨씬 풍성하고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다. 비교 자료가 많을 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많기 때문이다. 합리적 근거에 의해 도출된 희망 연봉일 경우 예년처럼 무작정 구단이 승리하리란 보장은 없다. 류지현 사례 이후 두번째 선수 승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2012년 이후 9년 만에 연봉조정 신청자가 나올까. 결론 확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멀리뛰기 국가대표 이희진 선수가 충남 청양군청 육상팀에 정식 입단했다. 8일 청양군에 따르면, 현재 대구훈련장에서 진행되는 국가대표 육상팀 훈련에 합류하고 있는 이 선수는 개인최고기록 6m 24cm를 보유한 간판스타다. 이 선수는 청양 출신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 다니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총별선수권 여자대학부 멀리뛰기 4연패 신화를 써내는 등 출중한 실력을 과시했다.

이 선수는 자신의 기록을 발판으로 오는 10월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400m, 1600m 계주에도 충남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이희진 선수 영입으로 청양군청 육상팀은 김기덕 감독의 지휘 아래 국내 마라톤대회 최고기록 2시간 5분 13초를 보유하고 있는 오주환 선수 등 6명을 보유하고 됐다.

고정화/기자



전순희/기자

임성재, 새해 첫 PGA 투어 대회 톱5...잉글리시, 연장 끝 통산 3승

김학범호, 올해 첫 소집훈련 실시...이창현 코치 합류

임성재 (23)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새해 첫 대회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톱5에 올랐다. 매서운 뒷심이 돋보였다. 임성재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의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줄여 합계 21언더파로 쟁쟁한 쉐플리(미국)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마스터스 토너먼트 준우승 이후 2020-2021 시즌 두 번째 톱10에 오른 임성재는 새해 첫 대회를 산뜻하게 치러냈다. 3라운드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를 맞은 임성재는 첫 홀 버디로 시작했다. 그러나 2,3번 홀 연속 보기로 초반 냉온탕을 오갔다. 임성재는 5번 홀(파5)에서 버디로 만회했다. 2번 홀에 성공한 뒤로 2파트로 버디를 성공했다. 전반 9개 홀을 버디 2개, 보기 2개로 주고받은 임성재는 후반 들어 뒷심을 발휘했다. 13번 홀(파5)에서 1.5m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한 임성재는 16-18번 홀에서 3홀 연속 버디로 단번에 순위를 끌어올렸



다.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 우승으로 이번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던 임성재는 첫 출전한 이 대회에서 톱5까지 올라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종 라운드에서만 9타를 줄인 호아킨 니만(칠레)과 4타를 줄인 해리스 잉글리시(미국)가 합계 25언더파 동률을 이뤄 연장을 통해 우승자를 가렸다. 승부는 1차 연장에서 갈렸

다. 18번 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니만이 버디 퍼트를 놓친 반면, 잉글리시는 1.5m 버디 퍼트를 깔끔하게 넣었다. 잉글리시는 지난 2013년 11월 OHL 클래식 이후 7년2개월 만에 PGA 투어 개인 통산 3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134만 달러(약 14억7000만원)를 받았다.

정동희/기자

김학범 감독이 2021년 첫 소집 훈련에 참가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 서귀포에서 2021년 1차 국내 훈련을 갖는다.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김학범호는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과 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직력을 다질 계획이다. 지난 11월 참가했던 U-23 친선대회에서 김학범호는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을 소집하며 이집트, 브라질을 상대로 1부 1패를 기록한 대표팀은 이번에는 K리그와 J리그에 소속된 선수 26명을 소집해 약 3주간 훈련을 진행한다. 박태준(성남FC), 이동률(제주유나이티드), 최준(울산현대)은 처음으로 올림픽 대표팀에 소집됐다. 이지솔(대전하나시티즌), 전세진(김천상무)은 2019년 이후 오랜만에 다시 발탁되며 기회를 잡았다. 송민규(포항스틸러스)는 지난 9월 남자 국가대표팀과의 스페셜매치를 통해 첫 발탁된 뒤 3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FIFA 클럽월드컵을 앞둔 울산현대 소속 선수들과 상무 입대를 준비 중인 조규성 등은 이번 소집에서 제외됐다. 김학범호는 11

일 강릉에서 소집해 훈련을 가진 뒤 19일 서귀포로 이동한다. 서귀포에서는 성남FC, 수원FC, 대전하나시티즌 등 K리그 팀들과의 연습경기를 갖고 2월 2일 훈련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소집기간 동안 선수단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김학범 감독은 대전하나시티즌의 지휘봉을 잡은 이민성 코치를 대신하여, 이창현 KFA 전임지도자의 합류를 결정했다. 이창현 전임지도자는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 전북, 부산과 성남 등에서 프로생활을 지냈으며, U-20 대표팀과 U-23 대표팀 선수로도 활약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훈련부터 김은중 수석코치, 차상광 GK코치, 김찬빈 피지컬코치 등 기존 코칭스태프와 김학범 감독을 보좌한다. 김학범 감독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만큼 새로운 각오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선수단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는 동시에, 어려운 시국이지만 올 여름 축구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자 올림픽 대표팀 1차 국내 훈련 소집 명단 (26명)

GK: 안준수(세레소 오사카), 안찬기(수원삼성), 허자용(성남FC) DF: 강윤성(제주유나이티드), 김강산(부천FC1995), 김재우, 정태욱(이상 대구FC), 김태환(수원삼성), 윤종규(FC서울), 이우현(전남드래곤즈), 이지솔(대전하나시티즌), 최준(울산현대) MF: 김동현, 박태준(이상 성남FC), 김진규(부산아이파크), 이상현(울산현대), 이수빈(포항스틸러스), 장민규(제주유나이티드), 전세진(김천상무FC), 정승원(대구FC) FW: 김대원(대구FC), 송민규(포항스틸러스), 엄원상(광주FC), 오세훈(김천상무FC), 이동률(제주유나이티드), 조영욱(FC서울)*선수 소속팀 정보는 1월 5일 현재 대한축구협회 등록 기준.

최정부/기자



www.yyg.go.kr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점 대한민국의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민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 · 산간고랭지 영양배심찬사과 · 이삭야채 시금치 · 영양배 피루미인 영양복숭아 · 저농약인증 영양포도 · 해발 1,209m 영양수박 · 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체스 · 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 · 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 · 고랭지 무공해 영양감귤 · 펴으로 기른 영양만담배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자연과
향수 어린 농사 체험 및 문화체험은 어떠신가요?
푸르른 강과 수려한 산들이 상쾌함을 더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나보세요.

